

#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모스 4:12)

Prepare to Meet Thy God



## 머리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과, 현실 그리고 복음의 질서는 무엇인가? 기독교계 내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신조들이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많다. 많은 신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조들이나 사상만은 확실하다고 믿는다. 기독교에 존재하는 많은 가르침이나 교리들은 몇 세기 동안 존재해 왔었으며 널리 받아들여진바 되었다. 무조건 교회가 이 교리들을 몇 세기 동안 간수해 왔다고 해서 모든 가르침이나 교리가 진리일 수는 없다. 세월이 오류를 진리로 만들 수 없고, 역시 반대로 세월이 진리를 오류로 만들 수 없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진리는 영원히 진리이다. (시 119:89,152,160)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요 8:32) 그러면 진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요 17:17 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이다. 진리는 성경에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이루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밝히 나타난바 되었다.

우리는 전통과 유전으로 전해 내려온 사상들을 내려놓고 성경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교회와 조상들에게서 받은 전통과 유전에 반대되는 교리와 진리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의 역사에서도 그러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큰 금신상에 경배하기를 거절하므로 세 히브리인들은 불타는 풀무 속에 던져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불꽃 속에서 보호하셨고, 우상숭배를 강요하기 위한 시도는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식을 모인 방백들과 넓은 바벨론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 앞에 제시해 주는 결과가 되었다.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조서가 내려졌을 때도 그러했다. 다니엘이 그의 습관대로 하루 세 번씩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방백들과 통치자들의 주의가 그의 사건에 집중되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할 이유와 그분께 찬양과 존경을 표해야 할 의무를 알려 줄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사자 굴에서의 다니엘의 구원은 그가 경배한 분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바울의 투옥 역시 달리는 빛이 전달될 길이 없었던 왕들과 방백들과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진리의 전파를 방해하기 위한 노력은 그것을 확산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진리의 탁월성은 보여질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더욱 분명하게 보여진다. 오류는 가장과 은폐가 필요하다. 그것은 천사의 옷을 스스로 입는다. 그러나 그 참 성격이 모두 드러나면 성공의 기회는 줄어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신 백성은 그들의 빛이 숨기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진리는 지상의 어두운 곳들에서 선포되어야 한다. 장애들을 대항하여 극복해야 한다. 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업은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들은 지금 도움을 얻기 위

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크게 화목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빛을 발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져야 하고, 그들은 심판에 설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있는 동안, 하나의 설득력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제시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따를 것이며, 그 빛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할 길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사단의 마술에 걸린 땅에서 더 이상 자지 말고, 우리의 모든 자원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이용해야 한다. 마지막 경고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계 10:11) 선포되어야 한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마 28:20) 약속이 주어져 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거룩한 진리를 그들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그들을 분리시키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분 자신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존하고자 계획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빛은 세상의 어둠 곳들을 비추어야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살아 계신 참하나님을 섬기도록 호소하는 음성이 들려야 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그분의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셨다. 진리의 예리한 칼,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써 그분은 그들을 교회들로부터, 또한 세상에서 분리시켜 그분 자신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예언의 진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거룩한 성경 말씀처럼 이것들은 세상에 전해져야 할 신성한 위탁이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방방곡곡에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나가는 백성을 대표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고 선언하신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갈바리의 십자가는 말한다. “영혼들의 가치를 바라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어떤 것도 이 사업을 방해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 시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것은 영원처럼 멀리까지 미쳐야 할 사업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구속을 위하여 겪으신 희생을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나타내신 사랑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행동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의 유전과 조화 되지 않고, 그들의 의견에 일치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 거룩한 창시자와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자들은 어둠을 빛이라 부르고 오류를 진리라 부른다. 그러나 어둠은 빛이 된다는 것이 결코 입증되지 않고, 오류가 진리가 된다는 것 또한 입증되지 않을 것이다.

복음에 관한 이 서적은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성경의 진리를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인용되는 성경절들을 보면 성경이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거짓된 사상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목 차

|                                    |    |
|------------------------------------|----|
| 서론.....                            | 5  |
| 제 1 장 구속의 경륜 (복음의 현실).....         | 6  |
| 제 2 장 고유의 욕망.....                  | 14 |
| 제 3 장 유일하신 참 하나님.....              | 17 |
| 제 4 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 25 |
| 제 5 장 하나님의 성령.....                 | 35 |
| 제 6 장 공격에 처한 기독교의 기초 (기독교 역사)..... | 44 |
| 제 7 장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          | 56 |
| 제 8 장 질문들 그리고 잘못된 성경절 풀이.....      | 63 |
| 제 9 장 다른 복음의 역사.....               | 74 |
| 제 10 장 일곱 재앙 그리고 재림.....           | 85 |

# 서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의 생각, 사상, 교리 등은, 대다수가 그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 역사의 증거는 특히 종교와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생각이 자주 틀린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 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찬부를 결정할 때는 위에 열거한 것들의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깨닫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감독이나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다.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의 습관과 유행에 한 치도 양보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자립하고 그 부패한 우상숭배의 관습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교계의 신앙적 표준보다 더욱 뛰어난 데에는 용기와 자립이 요망될 것이다. 그들은 구주의 극기의 본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들은 희생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자가 되는 표라고 주장하시는 십자가를 면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른바 소수의 자만에 빠진 철학자들의 견해를 성경의 진리나 성령의 증언들보다 더욱 신뢰할 만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사이에서 책임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은 오늘날에 있어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통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불합리하고, 신비적이며, 지성적 마음에 합당치 못하다고 선언된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신실한 성경 학도라면 베뢰아 사람처럼 이 일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며 우리의 믿는 도리를 말씀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행 17:11)

## 제 1 장 구속의 경륜 (복음의 현실)

성경에 나타난 한 이야기 가운데 복음의 현실을 더 확실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먼저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이 말씀 안에 복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음으로 그분을 배반한 인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사실, 이것이 복음의 현실과 핵심인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가 되심으로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실이 복음인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다.

우리들에게도 더욱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며 구속의 경륜에 관하여 밝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현재와 영원한 복리에 긴요한 이 문제에 관하여 성경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자가 백분의 일도 (직역:백명 중 하나) 되지 못한다. 백성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밝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빛이 비취기 시작할 때에 영혼의 원수는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이르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하여 활동한다. 만약 우리들이 배우고자 하는 정신과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오류의 찌꺼기들은 깨끗이 씻겨 내려갈 것이며 우리 눈에 가리워졌던 진리의 보석들이 발견될 것이다.

그러면 복음의 현실을 구약 시대에 예표로 보여주었던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갈 3:8, 창 22 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실재(현실)**를 그의 마음에 새겨 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아무 다른 시험도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영혼의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일으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치욕과 영혼의 고뇌를 목격한 천사들은 이삭의 경우처럼, 중재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죽하다” 라고 부르짖는 어떤 음성도 없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동정과 사랑에 대하여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주어질 수 있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롬 8:32).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그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죄한 지적 존재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

천사들까지라도 **구속의 오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사령관계**서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온 하늘 존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들은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이 명령이 성취되는 매 단계를 주시하였다.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하였을 때,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막 죽이려는 찰나 그의 손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양이 이삭 대신에 드리졌을 때, 바로 그 때 **구속의 신비 위에 빛이 비쳤으며**, 천사들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준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였다. (벧전 1:12, 창세기 22 장 참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 그리고 이 지구의 거민들이 구속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모든 우주 거민들에게 아브라함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러면 구속의 경륜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에덴동산이 창조되기 전, 죄가 아직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죄의 기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창조물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었던 때가 있었다. 모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있었다. 그 때는 아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에 대하여 의문을 품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이 조화와 평화는 우리가 지금 사단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마음에 죄가 일어남으로써 깨지게 되었다.

성경은 루스벨이 완전하게 창조 되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에스겔 28:15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루스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빛의 전달자”인데, 이것이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이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루스벨)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밟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 14:12)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을 때에 루스벨은 완벽하였다. 그는 당연히 가장 위대하고 첫째인 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정신을 다하여 사랑하” 였다. 루스벨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9) 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루스벨이 얼마나 오랫동안 완전한 상태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안에 “불의가 드리났다”고 말한다. 완전한 하나님과 완벽한 우주에서 살고 있던 루스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것은 아주 큰 신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루스벨의 타락과 관련된 몇 가지 세부 사항들을 말씀하셔서 우리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루스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 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겔 28:17)

루스벨의 마음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신 것은,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는 것인데, 루스벨이 자기가 아름답고 지혜롭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다. 이 교만이 루스벨의 지혜를 더럽혔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지혜가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관한 지혜이다. 이 지혜가 루스벨의 교만으로 더럽혀진 것이다.

루스벨이 완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사랑스럽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다. 그러나 루스벨이 자신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아름답고, 완벽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계속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기에 합당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그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더 나은 자리를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연한 지위를 금지하심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후로 루스벨은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부정하며, 이기적인 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그의 지혜가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자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식어졌다.

이 때 루스벨이 시기한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하늘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의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예수님)만 참석하시게 하시고 **평화의 의논이** (슥 6:13) 이 두 사이에서 진행 되는 것을 바라보고 시기하였다.

루스벨은 하늘에서 반역이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 지위가 높고 고귀한 천사였다. 그의 얼굴은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행복스러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의 높고 넓은 이마는 탁월한 지성을 보여 주고 있었다. 그의 품채는 완벽하였으며 그의 행동은 고상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특별한 빛이 빛나고 있어서 모든 다른 천사들보다 그의 주위를 더 밝게 비추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보다 더욱 뛰어난 분이셨다.** 그는 천사들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하나이셨다. 루스벨은 그리스도를 시기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홀로 가지셨던 지휘권을** 서서히 찬탈하였다.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당신의 아들에게 특별한 영예를 부여하시기** 위하여 하늘 무리들을 모으셨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았고 거룩한 천사들은 그 주위에 웅위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당신과 동등하도록** 규정하셨으므로 아들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아버지께서 계신 것과 같다는 것을 선포하셨다. 아들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과 똑같이 기꺼이 따라야 할 것이



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특별한 세상의 창조와 땅 위에 존재하게 될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기 위한 경영에 아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그 목적을 수행하셨으나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버지의 계획이 아들을 통하여 완성될 것이었다.

루스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시기하였다. 다른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의 최상권과 그 권위와 그 정당한 통치를 승인하고 경배할 때에 루스벨도 그 천사들과 함께 경배하였으나 그의 마음속은 시기와 증오로 가득 찼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특별한 의논에 참여하셨으나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늘의 주권자로 인정받으셔서 그분의 권능과 권위는 하나님 자신과 동등한 것이었다. 루스벨은 자기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가운데 가장 총애를 받는 자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매우 존귀를 받았었으나 이것이 그의 창조주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나라에 하지는 못했다. 그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열망하였다. 그는 자신의 높은 지위에 대하여 자랑하였다. 그는 천사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실행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었다. 그는 위대한 창조주 가까이 있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르고 있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찬란한 빛줄기가 특별히 그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천사들이 자기의 명령을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신속하게 순종하였던가를 생각하였다. 자신의 두루마기는 찬란하고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리스도는 왜 자신보다도 더 존귀를 받아야만 하는가?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간의 사랑도 믿을 만하였고 무아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아침의 아들” 루스벨은 덮는 그룹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그는 크신 창조주의 어전에 서 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의 끊임없는 빛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다.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印)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너는 기름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겔 28:12~15).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겔 28:17),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하나님의 못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 14:13, 14).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

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大權)을 갈망하였다.

그리하여 완전하던 하늘의 조화는 파괴되었다. 창조주 대신에 자신을 섬기려는 루스벨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 10 광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불안한 생각을 일으켰다.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서 천사들은 루스벨에게 간청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루스벨에게 나타내시고 또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불변성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질서를 세우셨으므로, 이 질서를 벗어남으로 루스벨은 창조주를 멸시하고 자신에게 파멸을 초래할 것이었다. 그러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루스벨의 질투심은 더욱 굳어 갔다.

루스벨은 자기도 그 회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 들어가게 허락하신 이유를 망각한 채 피조물인 주제에 이 두 분만의 회의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시기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루스벨은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우주를 다스리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마침내 말하기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사 14:14)고 자만한다. 즉, 다른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갈 1:6-9)

루스벨이 하나님에 대하여 악한 생각을 품으면서, 다른 충성스러운 천사들에게 의심의 씨를 심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른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해하기를 원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잘못 나타낸 이 반역 운동이 성공을 거두어서 천사들의 삼분의 일이 그의 반역에 동참했다고 성경은 말한다. (계 12:4, 7-9) 처음부터 그의 거짓말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으로 시작하였고, 그는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면 자기와 함께 반역에 참여할 것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질문을 던지는 거룩하지 못한 사업을 전개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법정에 올려놓았다.

## 에덴동산의 하와

마침내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으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쟁투는 땅에서도 계속될 것이었다. 뱀의 모양으로 가장하여 그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하와가 받아들이도록 속였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 3:1-3)

그의 첫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었다. 이때까지 하와는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온전히 믿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나무의 실과를 금지하신 까닭은 그녀의 최고의 유익을 위함이었다고 충분히 믿을만한 모든 이유가 그녀에게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 나무의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아주 부정적인 결과, 곧 죽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와는 그 과일이 본인에게 해로운 것을 이해했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과일을 금지하심을 믿었다.

여기서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그의 잘못된 사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 3:4-5)

사단의 거짓말 뒤에 숨어있는 목적을 주목해 보면 그는 하와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었다. 사단은 하와가 그 나무의 과일이 자기에게 해롭다고 이해하는 한 이것을 금지하시는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바라볼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단은 이 나무의 과일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와를 속여서 그것을 하와에게서 금지하시는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었다. 그는 하와가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사랑스럽지 못한 분으로 오해하기를 원하였다. 이것이 인류에게 말한 사단의 첫 거짓말의 목적이었다.

사단은 의심의 씨앗을 하와의 마음에 심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왜 그 나무의 과일을 자기에게 금지하셨는지 의아해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녀는 금지하신 이유가 자기의 유익을 위함인지 알았으나 이제는 달리 생각하기 시작했다. 과일을 바라보며 하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과일을 내게 금지하신 것은 내가 더 지혜롭고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일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 3:6)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하와를 가담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와를 타락하게 한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사단이 어떻게 완전한 죄 없는 존재를 유인하여 하나님께 공공연하게 반역하도록 하였는가?

그 때까지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를 무척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위해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녀의 필요를 채우셨다. 그 아름다운 정원에 있는 모든 것들은 놀라웠다. 사단의 부추김으로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좋은 것을 숨기시는 줄로 생각했다. 곧 그녀는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 그녀는 선악과를 먹었고, 우리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안다.

## 대쟁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이 사단의 멸망의 시작이었으며,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하와를 죄 짓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오늘날 우리를 역시 죄 가운데 두고 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계시와 감사만이 우리가 전에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

수세기 동안 세상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무지의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히 드러내고 그분의 자녀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하여 가지신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단번에 그리고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뚜렷하게 하시고자 오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해서 그분을 반역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귀한 모든 것조차도 희생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있는 대 쟁투의 쟁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품성에 대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만큼 사랑이 없다고 믿기를 원한다. 사단은 이 점에 있어서 우리를 속이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만큼 죄를 미워하며, 이 세상에 곧 닥칠 짐승의 표의 위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된 인식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해 준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7,38)

## 중대한 기별을 가진 천사

세상의 종말과 짐승의 표의 위기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논쟁의 기세가 세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4 장에서 첫째 천사로 표상된 매우 특별한 기별을 그분의 백성에게 주셨다. 이 기별은 우리로 하여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계 15:2)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 14:6) 이 천사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인간 대리자들을 대표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마 24:14 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 하실 때 계시록 14 장의 기별을 언급하신 것이다.

세상의 끝이 이르기 전에 영원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다. “기록된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널리 전해질 이 기별은 좋은 것들의 영원한 기쁜 소식이다. 어떤 좋은 소식이 영원히 좋은 소식인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좋은 소식이 있어! 당신은 십억의 현금에 당첨됐소!” 라고 하면 이것은 일시적인 좋은 소식에 불과 할 뿐 영원히 좋은 소식은 아니다. 영원히 좋은 소식은 영원토록 좋은 소식이어야 한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6,17)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혹은 선하심을 나타낸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좋은 소식이며, 백 만년 후에도 영원토록 좋은 소식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을 이 성경구절들에서 바울은 언급한다.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보일 때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롬 2:4)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동정, 인자하심과 자비를 이해하므로 우리는 회개에 이르게 되며 그분을 계속 섬기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 우리 생애에서 죄를 제거하는 작용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무엇을 선포하는지 살펴보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 14:7) 다른 두 천사가 첫째 천사의 뒤를 따르며 어떻게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만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가르쳐준다.

1.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2.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3.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의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라는 기별인 것을 볼 수 있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체와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앎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영원한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자들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 할 수 있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순종 할 수 있다.

## 모든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법정에 고소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재판에 회부하였고, 모든 사람은 배심원 중 한명이다. 이 재판에서 어느 편이 옳은지는 각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다. 나의 결정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깊이,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평가하는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확신 있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고 (계 14:12)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계 22:14) 자들 중 한 명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 무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이 재판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제시된 증거를 검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참된 예배자” 라고 (요 4:23) 하는 말씀이 적용될 것이다.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재판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검토해야 한다. 솔로몬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 18:13) 고 말했다.

## 제 2 장 고유의 욕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고유의 욕망을 갖게 하셨다. 이 세상 어디를 가나, 심지어 아프리카의 가장 오진 부족 마을에 가더라도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므로 인간의 허무함을 채우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므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을 채운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상상 속에 신화적인 신을 가지고 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에 기초한다. 불행하게도 많은 종교들은 거짓 신들의 개념위에 기초하였고 어떤 종교들은 참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개념위에 기초한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전 생애와 성품이 쏠 지워진다는 것이다. (고전 3:18) 엄하고 잔혹한 신을 믿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엄하고 잔혹하다. 하나님에 대한 각 사람의 이해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영향을 끼치며,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영원히 살 것이지 아니면 불의 호수에 멸망할지를 결정한다.

기독교와 이교의 가장 크고 중요한 차이는 경배하는 대상이다. 누구든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참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내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더 신기한 사실은 이 다른 의견들은 각자가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어떤 의견이 맞는지 알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같이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추측하게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직접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참 교육과 모든 참 봉사의 기초이다.** 그것은 유혹을 방지해 주는 유일한 참 안전책이다. 그것만이 우리를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것은 동료 인간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다. 품성의 변화, 생애의 순결, 봉사의 능력, 바른 원칙의 고수 등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달려있다.** 그 지식은 이생과 내세의 생활을 위하여 다 같이 필수적인 준비가 된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 9:10).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벧후 1:3)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고 말씀하셨다 (요 17: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예레미야 9:23,24)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관하여 주신 계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4 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 하셨다. 그들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주목해야 할 한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요 4:22)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해 보라. 사마리아인들은 이교도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경배한다고 하는 같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여인에게 그녀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청중들에게 비슷한 증언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행 17:23) 바울은 아레오바고에 모인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한다고 축하하는 중이었는가? 예수님 역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다고 칭찬하시는 것이었는가? 당연히 아니다! 이런 식의 경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도 불쾌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며, 그분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알아 그분을 경배할 때 누구를 경배하는지 알기를 원하신다. 잘 알지 못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면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쌓은 사람들은 절대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예배는 어떤 대상에게 향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향한 것은 아니었다. 성경은 거짓 신이나 우상들을 경배하면 실제로는 사단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고전 10:20 절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리고 신명기 32:16,17 절에서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의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만일 알지 못하는 신들을 경배하면 마귀들에게 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것은 심각하다!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점에서 틀리면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며 영생을 잃을 것이다. 사단은 인류가 거짓 신을 경배하도록 속이는 일을 세상에서 하고 있다. 사단은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관한 참된 사진(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만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면, 겉모양으로 보이는 우상은 없을지라도 바알의 종들처럼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외관상 신전은 보이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상(像)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를 할 수도 있다. **간직된 사상이나 대상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나무나 돌로 신들을 조각하는 것과 똑같이 쉬운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바알의 종들처럼 사실상 거짓 신을 섬기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천연계를 통하여 계시된 그대로의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 대신에 안치된 어떤 철학적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와 자비가 그분의 보좌의 속성이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들, 곧 우리 구주를 통하여 나타나신다. 그분은 인내와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이시다. 만일 그런 분이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분이며,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본

받고자 애쓰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 교리와 이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마치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나타냄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짓된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좌정해 계실 마음의 자리에 **철학적 우상**을 얹혀두고 있다. **한편 살아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창조의 업적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을** 경배한다. 많은 사람들이 천연계의 하나님은 부인하면서 천연계를 신과 같이 숭배한다. 비록 그 형식은 다를지라도 옛날 엘리아 당시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던 것과 똑같은 우상숭배가 오늘날의 그리스도교계에도 존재한다. 소위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신, 철학자와 시인과 정치가와 문필가들의 신, 교양 있는 상류 계급의 신, 많은 대학과 심지어 어떤 신학교의 신들은 페니키아의 태양신 바알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 또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계시된 성경의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들의 성령에 관하여 연구할 때에 빛이 이르러 오고 심령 속에 있는 고유의 욕망이 채워질 것이다.

성경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충분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 주도록 성직자에게 맡기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 오늘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것 이외에는 자기들의 신앙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노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들은 구주의 가르침은 거의 유의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면서 목사들의 말은 맹목적으로 믿는다. 5 그러면 목사들은 과오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들이 빛을 가진 자들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그들의 지도에 맡길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은 세속의 길을 끊어 버릴 도덕적 용기가 부족하므로 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고 그들 스스로 연구하기를 싫어하므로 속절없이 오류의 쇄사슬에 매여 있게 된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진리를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수반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빛에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지도자의 반대에 맹종한다. 비록 이성과 양심이 각성되어 있을지라도 그 기만당한 사람들은 감히 목사들과 다르게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개인적 판단과 영원한 유익은 다른 사람의 불신과 교만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게 된다.



## 제 3 장 유일하신 참 하나님

### 1.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어떤 중요한 질문을 하는가?

욥기 11:7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셔야 한다.

### 2.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 하셨는가?

이사야 40:26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분은 무한한 능력의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그분의 모든 창조물을 붙드시며 유지하신다.

이사야 46:9,10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다.

### 3. 성경은 몇 분의 참 신들을 드러내는가?

신명기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니.

-다신교를 믿던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한분** 곧 그분 자신이라고 말씀 하셨다.

신 4:35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주셨다.

렐 10:10 오직 여호와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 4. 참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자는 누구이신가?

**\*요 1:18 (킹제임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뿐이라,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주제에 관하여 가장 권위가 있으시다.

**요 3: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보고 아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늘에서 이 지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에게 하늘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기 위함이다.

#### 5. 예수님께서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누구라고 하셨는가?

**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현안이다.

#### 6.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지의 주재는 누구이신가?

**마 11: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천지의 주재이심. (눅 10:21 참고)

#### 7.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를 경배하는가?

**요 4: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직역: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자들은 아버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 8.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 하시는가?

마 6:9,10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9.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막 12:28-3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여기서 서기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과 한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동의하고 있다.

## 10. 예수님은 서기관이 틀렸다고 그의 대답을 수정하셨는가?

막 12:34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멸지 않도록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의 신념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대표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었다.

요 8:41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 11.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한 하나님을 누구라고 확인해 주셨는가?

요 8:5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 것도 아니어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 12. 그분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신가?

롬 3:29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 13.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하나님에 관한 같은 진리를 이방인들에게도 가르쳤는가?

약 2:19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고전 8: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엡 4:6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한분이라고 가르쳤다. 이 사실은 귀신들도 아는 사실이다! (귀신들은 타락 이전에 하늘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당연히 안다)

딤후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울은 하나님이 한분이라고 가르쳤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 14.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고전 8:4-6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롬 15:6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엡 4:6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엡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후 1: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 15.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살전 1:9,10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

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사시는 참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 16. 초대 그리스도교는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유지했는가?

행 2:42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행 2:42 (킹제임스)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 17. 만물의 창조주는 누구이신가?

계 4:9-11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행 17: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천지의 주재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 18.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엡 3:9 (킹 제임스역)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

골 1: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히 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 19. 만물의 머리는 누구이신가?

고전 11: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이심.

## 20.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가?

마 27:46 제 구 시 즘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 20: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엡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 3: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히 1:9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 21. 그리스도는 누구께 속했는가?

고전 3:23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 22. 하늘에 가서 몇 분을 섬기는가?

계 21:22,23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계 22: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어린양을 알고 섬기며 경배하는 것이다. (요 17:3) 이것은 이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것이며 영원토록 이 두 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제일 것이다.

### 23. 하늘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이 교제(사귄)가 더 일찍 시작될 수 있는가?

**요일 1: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사귄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다.)

##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요 4:24) 경배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정체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알아야 한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이만큼 사랑하신 것이다. 그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 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가장 귀한 소유인 그분의 독생자를 죄인들에게 주시므로 죄인들을 위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염소를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심각하게 의심할 것이다. 왜냐하면 염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에는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염소보다는 좀 더 나은 선물이지만, 인간도 역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선물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천사를 주셨다면? 인간보다는 더 나은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선물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의 가치에 비례한다. 주신 선물의 가치가 클수록,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더욱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이 세상을 위해 주셨다. 그분께는 다른 아들들도 있지만, 독생자(獨生子)는 말 그대로 오직 하나이시다. 우리는 입양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롬 8:14)고, 천사들은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욥 1:6 2:1),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하나님의 독생자(獨生子)이시다. (요 3:16, 요일 4:9,10) 이 우주에 사는 모든 존재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출생하셨다는 사실이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놓는다.

하나님께서서는 경험을 통하여,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소유가 무엇인지 아신다. 그분은 사람에게 그가 사랑하는 아이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는 줄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사랑과 충성을 이점에서 시험하신 것이다. (만약 부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더 잘 나타낼 것 같으면 사랑을 바치라고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자진하는 정신은 그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증명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겠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준 것은 그분이 어떤 소유라도 포기하고, 어떤 아픔도 견뎌내며, 어떤 고난도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시겠다는 것을 증명했다.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롬 8:32)를 기록할 때 이것을 의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이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실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열쇠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요일 5:5) 라고 요한은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깨우쳐지며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만든다.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요약:**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고 이 참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닌 아버지이시다. 이 분은 모든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곧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인데 그분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가장 분명히 계시된 진리들이 위대한 지혜를 가진 것으로 자처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의심과 흑암 속에 묻혀 버렸는데, 그들은 성경에는 그 사용된 언어에 나타나지 아니한 신비하고 은밀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가르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다. 599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막 12:24)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표상이나 상징으로 사용된 것 외에는 그 언어의 분명한 뜻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7)고 약속하셨다. 만일 사람들이 읽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잘못 인도하고 혼란케 하는 거짓 교사들이 없었을 것 같으면 천사들을 기쁘게 할 일이 성취되어 오늘날 오류에서 방황하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을 것이다.



## 제 4 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 1.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요 10: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요 5:18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제 아들 되심에 근거한다.

### 2. 아버지는 예수님에 관하여 어떻게 증언하셨는가?

마 3:16,17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 17: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거짓말이 없으신 (딤후 1:2)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예수님을 그분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 3.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 하였는가?

침례요한: 요 1: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나다나엘: 요 1: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백부장: 마 27:54 백부장과 밋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르다: 요 11:27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줄 내가 믿나이다.”

제자들: 마 14: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 \*요 6:69 (킹제임스 역)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마 16:15,16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열두 제자의 신념을 대표로 표현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였다. 그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을 17 절에서 읽어보자.

17 절, 18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예수님께서 18 절에서 설명하고 계신다.

#### 4. 사단과 그의 귀신들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막 3:11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막 5:7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눅 4:3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하늘에서 그의 타락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제 아들이심을 알았다. 광야에서 마귀는 이 사실에 도전한 것이다.

눅 4:41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눅 8:28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귀신들 곧 타락한 천사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안다.

#### 5.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다른 존재들도 있는가?

눅 3:38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은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임 (창 5:1) 천사들도 창조된 아들들임. (욥 38:7)

**요일 3: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임. (롬 8:15)

## 6.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아들로 묘사하는가?

**요일 4: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독생자' 이시다. 그분은 아담처럼 창조된 아들도 아니며 또한 우리처럼 양자로 입양된 아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독생자이시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음이 명백하다.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18 (킹제임스 역)**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뿐이라,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사람(인자)이 되셨다.

## 7. 예수님은 언제 인자(사람의 아들/Son of Man)가 되셨는가?

**갈 4: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눅 1:31**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 8.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가? 아니면 그 전에 되셨는가?

**잠 8:22-30**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

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부조 1 장 참조,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

###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전 1:24, 30)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골 2:3)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출생하신 것을 볼 수 있다. 만물의 시작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으므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다. 만약 위의 성경 구절들이 어떤 신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지혜의 시작에 관한 말씀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지혜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나중에 지혜가 생긴 분이라는 주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요 1:1,2**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 (In the beginning) 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며 시작이 있으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미 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태초에” (히브리어: ‘ô lā m) 는 “상상을 초월한 시간”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므로 시간도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시간보다 먼저 계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그 때가 거의 무한한 시간 전이었기 때문에 유한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실상 시작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도와 그의 의 13 쪽, 왜고너>

**잠언 30:4**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싣은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버지와 아들만이 창조 사업에 관여하셨다. 아들은 만물의 창조 이전에 출생하셨음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아들인척을 하시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인척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출생하신 아들이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성경 절들은 거짓말이 아닌 실제 사실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신 것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함정이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딤후 1:2) 만약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역을 맡아 수행하신다면 그분들은 우리에게 거짓

말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다.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역을 취하셨다는 말씀이 단 한군데도 없다. 만약 역을 취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혼란시키려 하셨단 말인가? (고전 14:33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 9.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요 3: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요 5: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한량이 없다.

## 10. 그의 신성의 출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히 1:4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출 23:20,21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베들레헴 월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다.

요 5: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가지신 불멸의, 어디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을 아들에게도 유산으로 주셨다. 이 불멸의 생명을 아들은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요 17: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창조시에 아들에게서는 이 생명을 모든 피조물에게 주셨다. 아버지의 생명은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만물에게 흘러 나간다.

## 11.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가지셨던 이름은 무엇인가?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단 10:21, 12:1, 유다서 1:9 참조

- ‘미가엘’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과 같은 유일한 분은 그의 아들이시다.

히 1:1-3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의 형상이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셨기 때문이다.

**참고:** 그리스도께서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셨다고 해서 그분을 하나의 천사나, 창조된 피조물로 볼 수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늘의 왕자이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분은 모든 천사들의 최고 사령관으로 천사장이시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총 지휘하셨다. 그분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대군도 되시고 또한 이 지구상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의 대군이 되신다. 단 10:21, 단 12:1, 단 1:9, 살전 4:16 참고

## 12.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신성을 가진 분이신가?

히 1:8,6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또 만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다. 그분께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인간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므로 신성의 하나님 아버지께 신성의 아들이 있으시다.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며 모든 이가 그분을 경배하라고 명령하신다.

골 2:9 1:1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신성의 충만 곧 신성이 아들 안에 있다. 그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다.

요 5: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두 분 모두 같은 신성의 본질을 가지셨으므로 이 두 분께 같은 존경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존경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최고의 존경을 하나님 아버지께도 돌린다.

## 13.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요일 2:22,23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께서 아들이심을 부인할 때 우리는 사단의 영(적그리스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 아버지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요일 5:10,11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요 3: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4. 어떤 이들은 ‘출생’ 하셨다는 의미가 ‘창조’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혼란스러워 한다. ‘출생’ 한 것과 ‘창조’ 된 것의 차이는 그리스도와 타락전의 루스벨을 비교하면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리스도와 루스벨의 차이는 무엇인가?

잠 8:24, 25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두 번이나 예수님에 대하여 나으셨다고 언급되어 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 19:26, 눅 1:37 참고) 천연계에서도 짝이 없이도 새로운 생명체를 복제할 수 있는 생물들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나으셨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알 바도 아니며 알 수도 없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18)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 29:29)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겔 28:13,15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서 두 번이나 루스벨이 ‘지음’을 (히브리어와 영어로는 ‘창조’로 되어있음) 받았다고 한다. 그리스도는 나으심을 받았고 루스벨은 창조함을 받았다.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출생하셨다는 것이 창조한 것과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루스벨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 15. 예수님은 소경에게 어떤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가?

요 9:35-38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요 9:35-38 (킹제임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니이까? 주여 제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 16. 유대인들은 왜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마 26:63-65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의 대답 “네가 말하였노라” 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와 같은 의미이다.

막 15:2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요 19:7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는데 이는 이와 같은 주장이 그분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요 10:33)

## 17.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 **예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나오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의미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



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잠 8:24,25,30) (부조 1 장 참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아무것도 창조되기 전에-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출생하셨다. (히 1:5, 골 1:15, 요 3:16-17, 18:37, 요일 4:9) 어떻게 출생하셨는지는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묘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관계가 배우와 같은 역(연극)이 아니고 참으로 실제적이고 친밀한 부자 관계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그대로를 의미하신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내어 주신 것인가? 많은 성실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똑같이 동등한 나이 이신 줄 믿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께서 내어 주신 것은 친구 아니면 영원한 쌍둥이 형제가 전부였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일 것 같으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분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돌아가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는 그 사랑을 인해 예수님을 찬미하고 감사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이 우리의 죄의 무게 때문에 고난 받을 때 같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한다. (시 18:4-11 과 마 27:45-51 참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도 이삭보다 더 심적 고통을 당한 분은 그의 독생자를 내어준 아브라함이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러한 큰 속죄를 인함이 아니니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이러한 속죄를 준비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을 타락한 세상에 부어 주시는 일에 매개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고후 5:19)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치르셨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하고 천사가 말했다. 죄지은 인류가 죽도록 버려두는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한 아들을 죽게 내어 주는 것은 둘 다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천사들 중에 멸망해 가는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생명을 바칠 자가 있을 만큼 인류의 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다”라고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범죄는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천사의 생명으로는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중보** 외에는 다른 아무것으로도 그 값을 지불하고 절망적인 슬픔과 불행으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가지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고 말씀하셨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적어도 120 번 정도 언급하였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구를 47 번 사용한다. 그리스도가 아들이심 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독생자”를 다섯 번, “처음 나신 자”로 한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子)”로는 두 번 불리신다. 성육신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는 구절이 4 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으

로부터 “나서 왔다” (요 8:43) [한국어로는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번역 되었지만] 헬라어와 영어로는 “came out from,” or “camest forth from” 즉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이 (요 16:27,30; 17:8) 총 4 번 나온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트롱 사전 번호 G1831 ἐξέρχομαι/exerchomai 로 나왔다는 원어적인 의미임.) 예수님께서 요 14:28 절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고 말씀하셨다. 한국어 “크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μεῖζων/meizōn G3187) “나이가 더 많다”는 의미이다.

이 주제와 관련된 증거는 너무도 많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나으신 실제적인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과 다른 것을 믿기를 원하셨더라면, 이 주제를 밝히시는 일을 참으로 서툴고 형편없이 하신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르게 믿기를 원하셨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말라는 조금의 해명도 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넣으심으로 우리를 일부러 혼란시키려고 한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전 14:33)

작가들이나 공중 연설가들은 오해하기 쉬운 어떤 단어들이나 문구를 사용할 때 듣는 이들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신약 전체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언급이 있을 때마다 그 의미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저자의 해명이나 수정이 없다! 물론 다른 주제에 관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요 14:2)는 예수님의 말씀의 똑같은 원칙이 이 주제에도 해당된다.

독자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나는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었는데……”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약:**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영원 전에 출생하신바 되었으며 루스벨처럼 아무것도 없는데서 창조된 것이 아닌 그분의 아버지의 물질을 그대로 이어받아 출생하신바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증언이었으며 또 성경의 증언이다.

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묘라고 선고해 버리거나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지나쳐 버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교훈으로 충만해 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실천하기를 원치 않는 진리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감아 버리기 때문이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 연구에 사용되는 지성의 능력에 의존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심전력하는 태도, 곧 의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

## 제 5 장 하나님의 성령

성경은 많은 영들에 대하여 말한다. 사람의 영이 있고 귀신들의 영들이 있다. 사실, 욥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는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히브리어=영/ruach)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충명을 주시 나니.” (욥 32:8) 성경은 영을 사람이 생각하고, 추리하고, 근심하는 등의 부분이라고 말한다. 다윗은 “내 심령이 (히브리어=영/ruach) 속에서 상할 때에도……” (시 142:3) 라고 기록하며 이사야 선지자 역시, “밤에 내 영혼이 (히브리어=영/ruach)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사 26:9)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 (헬라어=영/pneuma) 에 아시고 이르시 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막 2:8) 성경의 증언에 기초하여 사람의 영은 생각, 의식, 추리의 중심부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람에게 영이 있는데, 하나님께도 영이 있는가?

### 1. 사람의 영은 사람에게서 분리된 또 하나의 개체인가?

단 2:1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는지 이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히브리어=영/ruach)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한국어로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원문인 히브리어와 영어에는 영으로 적혀있음.

\*단 2:1 (킹 제임스 역) 느부갓네살의 치리 제 이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의 영이 그것으로 인하여 번민하였고,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번민한 사람은 왕 자신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당연히 왕 자신이 아닌가? 그의 마음인 그의 영이 번민하였다. 그의 영은 왕과 다른 개체가 아닌 왕 자신의 영이다.

### 2. 하나님께도 영이 있는가?

고전 2:11, 12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였다. (창 1:26) 사람에게 육체와 영이 있듯이 하나님께도 형체와 (단 7:9,13) 영이 (요 4:24, 시 139:7)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영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렘 23:24, 시 139:2-12, 계 5:6)

### 3. “영”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정의 하는가?

사 40:13 누가 여호와와 신을 (히브리어= 주의 영/ruach)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바울은 이 성경구절을 로마서에서 인용하며 “영” 이 무엇이지 말한다.

롬 11: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뇨?

-여기서 우리는 “영”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볼 수 있다. 영=마음. 주의 영=주의 마음

### 4. “영”에 대한 또 다른 성경의 정의는 무엇인가?

요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서는 명백히 그분의 말씀이 영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말은 우리의 생각/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신성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공식을 쓸 수 있다: 영=마음=하나님의 말씀=생명

### 5.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가?

엡 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 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는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체적으로 아프게 할 수는 없어도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창 6:3,6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히브리어=영/ruach)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 이십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서는 홍수 전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다. 그들은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는데 곧 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였다.

### 6. 아버지에게 영이 있다면, 아들에게도 있는가?

빌 1:19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갈 4:6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벧전 1: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도 똑같이 영이 있으신 것을 볼 수 있다.

## 7.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엡 4:4**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두 개나 세 개가 아닌 오직 하나의 성령이 있다. 이 영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어 가진 하나의 영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다.

**롬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위의 성경 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은 같은 하나의 영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영/임재/생명/본질의 핵심/마음/능력을 공유하신다. 두 사람이 마음이 통하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시 139:7, 눅 1:35, 롬 8:2, 롬 11:34)

## 8. 성령을 받으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인가?

**요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성령을 받음으로써 다른 분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성령은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이다.

## 9.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요 14:16,17,2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다. (요 14:6 절 참조)

## 10. 이 영은 어디서 나오는가?

요 15: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는 하나님으로 부터 유래되어 나온다는 뜻이다.

## 11. 이 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마 10:19, 20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막 13:11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 15: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 16: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 16:13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 12. 우리의 보혜사(위로자)가 되시기 위하여 누가 오시는가?

요 14:18,19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요 14:21,22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위로자이시다!!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 13. 회심한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 주실 것인가?

행 3:19,20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다.

### 14. 요 1:14 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무엇이 되셨는가?

고전 15:45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22 절)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혹은 ‘생명을 주는 영’ 이 되셨다.

### 15. 주님의 부활 후에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 주시는가?

갈 4:6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다.

### 16.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을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분을 받는 것인가?

고후 3: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예수님이시다. (고전 8:6) 그러니 한 주님이 계시면, 한 영이 있는데, 주님이 그 영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영으로 보혜사/위로자가 되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 17.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전 6:17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말씀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른 말로 하면 영은 생명이다. 우리는 이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므로 얻을 수 있다.

요 15:5,7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골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이 있다. 곧 하나님의 영을 갖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과 생명인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 19. 베드로는 이 과정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벧후 1: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됨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 20. 이 생명/영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요 10:11,15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21. 예수님은 십자가 직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가?

요 17:20,21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일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된다.



## 22.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하나이신가?

요 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4:10,2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와 예수님은 그분들이 공유하신 영을 통하여 하나이시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이시다.

## 23.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롬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으로 된다. 그분의 영과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는 것이다.

## 24. 제자들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였나?

고전 3:16 6:19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엡 3:16-19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골 1: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요일 4: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인 우리 안에 그의 성령으로 거하신다. 이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의 보혜사/위

로자이신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영생의 소망이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소망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계실 때에 우리 속 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게 된다.

## 25.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초청은 무엇인가?

요 14: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계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 26. 왜 성령을 “그” 혹은 ‘다른 보혜사’ 라는 삼인칭의 표현법을 사용하였는가?

예수님의 말씀 중 삼인칭 표현법의 예:

요 3:13-18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 4:10,26,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요 9: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위의 성경 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른 분처럼 삼인칭 표현법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사도 바울 역시 고후 12:3 에서 같은 표현법을 사용하였다. 사도 요한도 요 19:26, 21:20 절에서도 같은 표현법을 사용하였다.

-요 1 서 2:1 절에 언급된 ‘대언자’는 ‘보혜사(위로자)’와 같은 의미이며 ‘Parakletos’라는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대언자는 누구이신가? 당연히 예수님이시다. 더 이상 육신의 눈에 보이는 위로자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로자이시다.

## 27. 도표

Holy (성)=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레 19:2)

Spirit (령/영)=하나님은 영이시다. (요 4:24)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메시아=기름 부른 자)

(사 42:1, 61:1, 마 16:16, 눅 4:18,21, 요 3:34, 시 45:7-히 1:9)



그리스도인

(마 3:11, 요 15:26, 16:7 20:22, 행 1:8, 2:38, 3:19, 4:8,31, 롬 8:9,

고전 6:19, 엡 5:18, 딤후 1:14, 딤후 3:5 요일 2:27; 계 5:6)

## 28. 성령의 표상

1. 기름 (스 4:6, 12, 마 25:4, 8)
2. 물/비 (호 6:3, 10:12, 욥 2:23, 스 10:1)
3. 불 (행 2:3)
4. 바람 (요 3:8, 행 2:2)
5. 빛 (비둘기 같은 빛의 모양, 마 3:16, 눅 3:22,)

위의 표상을 볼 때 성령은 숫자 (개체) 의 개념이 아닌 양(量)의 개념이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  
인 주심이니라.” (요 3:34)

**요약:**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성경의 증언은 곧 하나님 자신의 신격과 존재의 핵심인 것이다. 그분의 귀중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말씀/임재/생명/본질의 핵심/마음/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개체를 가진 또 다른 존재가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의 진리는 미혹케 하는 이론인 삼위일체설의 가면을 벗긴다.

## 제 6 장 공격에 처한 기독교의 기초 (기독교 역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시 11:3)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해안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보셨다. (마 16:13-18)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주제를 바꾸어서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언급하신 것이다. 이것은 아주 명백하고 중요한 진리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진리이다.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은 기독교와 복음의 기초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 16:18)를 말씀하셨을 때 이 기초를 의미하신 것이다.

영감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거짓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경고한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일 2:22, 23) 요한은 또 이렇게 썼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 2서 1:9) 아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것이 상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거짓 이론은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한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시대의 초대 교회는 ‘독생’이라는 단어에 대한 신비스러운 해석 없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예를 들어 저스틴 마르티 (Justin Martyr) (110-165 AD) 는 잠언 8 장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였다.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듣는 이들이여, 그대들이 주목하면, 이 성경절은 만물의 창조 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으심을 받은 소생을 선포하며, 나음을 받은 자는 나은 자와 숫자적으로 별개의 존재임을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다.” (저스틴 마르틴-트리포와의 대화 129 장)

노베이션 (Novatian 210-280 AD) 은 이렇게 기록했다. “만물의 창조자와 설립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며, 무한하시며, 불멸하시며, 영원하시며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뜻하셨을 때, 그분에 의해서 말씀이신 아들이 출생하셨다…… 아들보다 아버지께서 먼저 존재

하셨다. 이는 시작이 없으신 분이 시작이 있으신 분보다 먼저 계셨는데 이것은 필수적이다. 아들은 출생하셨기 때문에 기원이 있으며, 그분의 출생 때문에 아버지와 어떤 한도 내에서 본질적으로 같으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홀로 시작이 없으신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기 때문이다.” (노베이션, 안테 니케이 선언 조 5 권 31 장, Ante Nicene Fathers Vol 5. Novation)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베들레헴 출생전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실체적인 독생자로 믿었다.

## 삼위일체의 기원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에 소개된 그 순간부터 뜨겁고 맹렬한 논쟁의 주제였다. 몇 세기 지난 오늘날에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 교리의 신봉자들이 “위대한 신비”라고 부르는 이 교리에 관하여 논쟁과 분열은 계속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읽어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삼위일체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종교대백과 사전*은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신학자들은 히브리 성경이 삼위일체 교리를 함유하고 있지 않다고 동의하고 있다.”

*신 카톨릭 백과사전*도 이렇게 인정한다:

“삼위일체 교리는 구약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많은 신학자들은 구약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예수님의 생애를 구유에서 무덤까지 살펴봐도 그분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다. 또한 신약에서도 그렇게 언급한 적이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 약 400 년 후에 이 교리는 기독교의 인기 있는 가르침 중 하나로 받아들였다. 공식적으로는 서기 325 년 니케아 총회와 서기 381 년의 콘스탄티노플 총회에서 이 교리가 정립되고 받아들여진바 되었다. *엔카르타 백과사전*은 삼위일체교리가 기독교에 입문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기독교의 신학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신학은-하나님이 세 위격-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며, 그들이 한 존재이거나 한 본질이라는 교리이다. 신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불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고 있다. 또한 신약에서도 삼위일체의 교리를 명백하게 가르치지 않는다.**” -엔카르타 백과사전

삼위일체-트리니타스(Trinitas)라는 용어는 라틴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에 의해 처음 쓰였으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논쟁 과정 중에 이 개념이 발전되었다. 4 세기경에 이 교리는 최종적으로 확립이 되었다.

삼위일체에 관한 기사에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이렇게 말한다. “이 교리는 많은 논쟁을 통하여 몇 세기 동안에 서서히 발전하였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이 교리는 처음 4 세기 동안에 “발전”되었다고 한다.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라. 개신교는 성경을 믿는다. 개신교의 표어 중 하나가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이다. 천주교는 유전과 성경을 믿는다. 개신교는 “모든 필요한 교리는 성경에서 가르친다” 고 말한다. 천주교는, “아니다, 교회는 세기들 (유전) 동안에 진리를 더 발견하고 선포한다”고 한다. 이것에 기초하여 천주교는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한다. 삼위일체교리는 성경보다도 오히려 천주교의 유전에 기초한다. 그리하여 천주교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그들을 정당화 한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성경에 명백히 정해지지 않은 신조를 독단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개신교들도 복음서에서 명백한 권위가 없는 삼위일체의 정설을 받아들였다.” (Life Magazine, Oct. 30, 1950)

그러나 셋 안에 하나인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삼위일체 교리는 서기 4 세기경에 “기독교”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교황청의 어떤 성당, 마드리드의 삼위일체 수도원에는 한 몸에 세 머리가 달려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상이 있다. 바벨론인들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방 나라들이 히브리인들에게서 삼위일체의 개념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에서 삼신 사상이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아래의 사실은 이방인들이 삼신 경배 사상을 이스라엘인들에게서 모방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보여 줄 것이다.

##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믿었는가?

유대교의 주요 신조중 하나가 하나님은 한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신조가 아니며, 한 국가로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신조 중 하나이다. 그들은 지금도, 그리고 전에도 하나님이 세 위격이나 부분으로 만들어졌다고 믿거나 가르친 적이 없다. 이것은 유대교의 핵심적인 신조로써 “쉐마”라고 불리며 신 6:4-6 절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히브리어 단어 [1]“엘로힘”이 복수형이므로 하나님도 복수라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히브리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의미심장한 사실은 자기의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히브리인들은 전에도 현재도 하나님이 복수라고 믿거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실이다. 바로 그 단어 “엘로힘”을 포함하고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 6:4) 의 “쉐마”는 위대하신 한 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서 유대인들이 그들 신조의 불변의 기초로 삼는 구절이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구체적인 계시와 가장 높은 개념을 가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믿지 않았으며 정반대의 것을 거듭 거듭 강조하였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은 계시를 받은 백성이 절대로 삼위일체에 관한 개념이 없는데 그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개념을 받아 간직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다. 유대인들보다 이런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었는가?

어떤 신학자들은 엘로힘을 장엄 복수형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오늘날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가 꼭 하나 이상을 의미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아래의 성경절들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개체에 사용한 예들이다.

출 7: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엘로힘)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삿 16:23, 24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엘로힘)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엘로힘)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엘로힘)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엘로힘)을 찬송하며

왕상 18:27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 (엘로힘)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간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이들은 신명기 6:4 절에 나온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에 나온 ‘하나’가 히브리어 [2]\*에하드/echad 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한다. 그들은 ‘에하드’가 ‘여러 개의 개체가 모여 이룬 통일된 하나’의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하드’는 단 하나의 개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써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창 42:11) 이 절에서 쓰인 “한” 도 ‘에하드’이다. 야곱이 여러 개의 개체가 모인 통일된 한 사람이란 말인가? 결코 아니다. 창 11:1; 42:11; 48:22; 출 29:15,29,20; 레 16:5; 민 10:4 외 여러 성경 절들에서 단 하나의 개체를 두고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여러 이방 나라의 삼위일체 신화 가운데서 세 번째 존재는 대부분 악한 자를 대표하였다. 고대 이집트, 페르시아와 오늘날의 인도 힌두교에서 경배 받는 삼위일체 신들에 관하여 살펴보자.

- 바벨론: 이스타르, 신, 사마스
- 애굽: 오시리스, 호로스, 셉
- 페르시아: 아후라 마즈다, 미트라, 안그라 마이뉴
- 인도 (힌두교의 삼위일체): 브라마, 비쉬누, 시바 Published by A. Parthasarathy, Bombay.

이런 이교 삼위일체의 전설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눈에 띄는 요소가 발견된다. 두 신은 선하며 자비롭고, 한 신은 이 두 신을 공격하고, 파괴적이며, 전쟁을 좋아한다.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를 빼놓아서야 되겠는가? 이것이 이방국가들이 소위 유대인들에게서 받은 삼위일체의 개념인가?

## 성경에서 묘사된 세 존재

1. 절대적으로 온전히 선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단 7:9-13, 고전 8:6, 딤후 6:15,)
2. 최고의 사령관이시며 왕자이신 미가엘, (단 10:13, 12:10) 주님 (시 110:1), 아버지의 아들 (잠 8:22-31, 30:4) 역시 절대적으로 온전히 선하신 분이심
3. 원수 사단은 참소자 (계 12:10), 파멸자 (욥 1:6, 2:7), 뱀 (창 3:14,15, 계 12:9), 타락한 천사 (사 14:12-15, 겔 28:12-19)로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대적하며 인류를 파멸 시키려한다.

이렇게 이교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개념은 참 삼위일체를 나타내기 보다는 오히려 삼위일체 교리의 허위와 그 기원의 정체를 드러낸다.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대적한 한 존재가 있었다. 모든 의의 원수인 존재였다. 이 존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함께 경배 받기를 원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시기 질투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세 번째 가는 권력을 가진 존재, 즉 루스벨이었다.

루스벨은 하늘에서 반역이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 지위가 높고 고귀한 천사였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 되기를 원했고 이 목적을 이루려고 시도하다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에게 반역하였다. 이 존재는 원수요, 파멸자인 사단이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 12:7,8)

이교의 삼위일체 신화 가운데 세 번째 존재로 묘사되는 인물은 곧 사단이다. 사단이 하늘에서 이룰 수 없던 일을, 지상에서-삼위일체의 세 번째 존재로 경배를 받는 것이다. 이방 국가들은 히브리인들에게서 무엇을 배우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구속의 경륜의 참 이야기를 왜곡시킨 거짓 이야기였다. 이방 나라들의 신화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고 신이 되기를 갈망했던 능력 있던 존재 루스벨 사이에 있었던 우주적인 전쟁에 관한 사실을 왜곡시킨 이야기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세 번째 “신”을 경배한다. “삼위일체”의 신자들에게서 이 세 번째 신은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이 신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시여자로 경배 받는다. 이 “삼위일체”의 세 번째 존재는 누구인가? 힌두인들이 죽음과 파멸의 신으로 경배하는 ‘시바’ 이고 페르시아인들이 경배하는 미트라와 악한 형제인 ‘아리만’이고 애굽인들이 경배하는 셉이다. 즉 다시 말해서 그는 사단 자신이다.

## 기독교에 입문

이미 본바와 같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삼위일체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교리는 기독교의 첫 4 세기 동안 “서서히 발전” 되



었다고 한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편만했고, 성경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이교와 기독교를 혼합시킨 세력(천주교)에 의해서 큰 배도의 시기 동안에 “서서히 발전”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기독교의 역사”라는 그의 책 서론에 이렇게 말한다. “만약 이교가 기독교에 의해 정복을 당하였다면, 역시 기독교도 이교에 의해서 오염이 된 것도 사실이다……” (기독교의 역사-에드워드 기본스)

## 이설이 일어나기 시작

시간이 흐르면서 이설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고 어떤 이들은 성경의 명백한 말씀들을 원래 의도되었던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서기 185-254 년에 살았던 오리겐은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아들의 영원적 출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오리겐은…… **영원적 출생**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하였다. 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Zodhiates, The Complete Word Study Dictionary-New Testament, page 364) 영원적 출생의 이론은 그리스도께서 실제 아들이 아니라는 주장이며, 현재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출생하고 있는 신비한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한 천주교 출판물은 영원적 출생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기독교의 신조는 역사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로부터 하나의 끊임없는 작동으로 영원토록 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Tell Us About God…… Who Is He? Page 30, by the Knights of Columbus)

오리겐에게서 비롯된 영원적 출생이라는 이론은 처음에는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의 영원적 출생의 개념이 시작 된지 거의 백년이 지난 후에 주목할 만한 숫자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서기 325 년 니케아 총회에서 공식화된 신경의 진리로 채택됐다. 그러나 그 때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총회에 참석했던 주교들은 황제 콘스탄틴에게서 받을 벌이 무서워서 이 신경에 찬성하는 서명을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아들이 아니라는 새로운 개념은 성서적 복음의 일부분으로 간주되기에는 너무 늦게 역사의 페이지에 올라온 것이다. 예수님의 아들 직분에 관한 신비적인 견해는 니케아 총회가 주축이 되어 이 때로부터 새로운 가르침으로 자리를 잡아간 것이다.

## 니케아 총회

서기 325 년에 318 명의 주교들이 니케아 시(市)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출생하신 아들인가 아닌가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이 총회에서의 논쟁에 관하여 한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아리안 논쟁은 주로 아들의 영원적 출생에 관한 것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독생자” 라는 의미에 대한 논쟁이었다.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Second Series, Volume 9, Chapter 2, Introduction to St. Hilary of Poitiers)

이 논쟁이 아리안 논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아들은 둘 다 같은 나이며, 두 분 다 시작이 없다고

한 알렉산더 주교의 설교를 아리우스라는 장로가 공개적으로 부인하였기 때문이다. 아리우스는 아들이 만약 진짜 아들이라면 시작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이 시작을 창조라고 하며 그리스도께서 “무(無)에서 출생하였거나 창조되었다”는 **부주의한** 말을 하였다. (Arius as quoted in Alonzo T. Jones’ *The Two Republics*, page 333) 이 논쟁은 신속히 퍼져서 사람들로 편을 가르게 하였다. 대다수는 아직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예수님께서 무(無)에서 창조함을 받은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여 시작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논쟁에는 세 무리가 있었다.

- 1)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의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신 시작이 있다고 믿는 자들
- 2) 예수님이 무(無)에서 창조되었다고 믿는 자들
- 3)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시작이 없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나이가 같다고 믿는 자들

사실 아리안 논쟁은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견해의 논쟁이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또한 시작이 없으신 것도 아니며, **오히려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 대로 출생하신 분이시다.** (히 1:1-6; 골 1:15; 시 2:7; 잠 8:22-30 참조)

이 논쟁이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연합된 기독교회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서기 325 년에 니케아 시(市)에서 총회를 소집하였다. 이 총회에 대하여 빌립 샤프는 이렇게 기록한다, “이 신학적인 문제에 관하여 총회는 초기에 세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통파는 소수였다…… 아리안들 아니면 에우세비우스들은 20 명 정도의 주교들이었으며, 유명한 역사가 에우세비우스가 주축이 된 대다수는 좌파와 우파의 중간 지점을 선택하였다……”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ume 3, pages 627, 628)

샤프는 한 무리를 “정통 무리” 라 부른다. 즉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이가 똑같으며 아무런 시작도 없다는 무리이다. 샤프는 이 무리가 처음에는 소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들은 정통파가 아니었는데 ‘정통 혹 정설’ 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관례에 의한 것, 유전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정통파”라 하는 무리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을 믿지 않았다. 오늘날은 이 무리가 “정통 무리”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오늘날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케아 총회 당시에는 그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정통 무리가 아니었다. “정통”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의 참 진리를 그대로 믿던 (예수님을 실제적인 독생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였던 것이다.

니케아 총회 소집 당시, “소위 정통 무리”,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실제적으로 출생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똑같이 시작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소수였으며 (20 명 이하), 그보다 좀 더 큰 무리 (20 명 정도)는 아리안 그룹으로 그리스도가 무(無)에서 “출생하였거나 창조” 되었다고 하는 이들이었다. 이보다 훨씬 큰 다수는 가이사랴의 에우세비우스가 지도자가 되어 (279 명 이상)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출생 하셨으며 하나님의 유일한 처음 난 아들이라고 주장하였다. (Eusebius’ *Ecclesiastical History*, page 15) 가이사랴의 에우세비우스가 지도자가 된 이 중간 무리는 니케아 총회 이전부터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 이르기까지(그리스도 시대를 넘어서 구약의 부조들까지 포함)의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혹은 신조를

대표하였다. 그들은 그 당시의 참 정통 무리였으나, 오늘날은 마치 그들이 “아리우스 이설” 이후에 생긴 무리인 것처럼 그들을 “반 아리안주의” 무리라고 한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그들의 신조가 아리우스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존재했으며 그들이 대다수였음을 증명한다.

“반 아리안주의” 라고 불리는 무리의 지도자는 자신의 믿음의 신조를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이 신경은 이 논쟁이 일어나기 전에 널리 사용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믿음의 고백은 자기 어린 시절에 가이사라의 주교로부터 배운 것이며, 자기 침례 시에도 사용한 것이고, 일평생 장로와 주교로써 내내 사용하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The Two Republics*, by Alonzo T. Jones, pages 347, 348)

가이사라의 에우세비우스가 지도자였던 이 무리는 당시 니케아 총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삼위일체를 믿는 무리들에게 부끄러움을 준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창조되었거나 영원토록 출생하고 있다고 하지 아니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셨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삼위일체를 옹호하는 많은 역사가들은 이 무리를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시하거나, 혹 언급할 때는 “아리우스 이설” 후에 생긴 무리인 것처럼 “반 아리안주의” 무리라고 한다. 하지만, 역사의 사실들은 이 신조가 아리우스가 존재하기 훨씬 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권력과 영향을 힘입어 이 소수의 “정통 무리”는 모두가 이 신경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나이며, 실제 아들이 아니라는 교리) 서명하든지 아니면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실제적으로 출생하지 않으셨다는 새로운 견해가 일어났고 서기 325년에 니케아 총회에서 새로운 교리로 채택 되었다. 이 총회 후, 충격을 받은 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우리는 나의 주님이 출생하지 않은 두 분이며, 아니면 한 분이 두 분으로 나뉘셨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전혀 없다. 그런 것이 신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배우거나 믿은 적도 없으며, 우리는 한 분은 출생하지 않은 하나님이며 한 분은 그에게서 진실로 출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뿐이다. 우리는 아들의 기원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믿는다.....” (Letter written by Eusebius of Nicomedia as found in *An Historical View of the Council of Nice*, by Isaac Boyle, page 41. This book was included in Baker Book House’s edition of *Eusebius’ Ecclesiastical History*.)

## 그리스도가 아들이심이 정설이 되다

니케아 총회 이후에 아리우스주의 자들과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출생하셨다고 믿는 자들은 니케아 교리에 대한 그들의 투쟁에 연합하였다. 니케아 교리가 추방의 위협으로 확립이 되긴 하였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신조였다. 이 신조를 정설 교리라고 부를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니케아 총회에서 황제의 권력을 힘입어 가결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것이 “정통” 이 되기 위해서는 다수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하였다. 그러나 니케아 총회 이후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니케아 교리를 반대하여, 총회 이후에도 수년 동안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독생자라고 믿었다. 사실은 니케아 총회 34년 이후에 이 견해가 리미니 총회에서 서기 359년에 천주교회의 정식 가르침이 되었다. 아리우스주의 자들과 반 아리안주의 자들은 그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한 신경을 채택하였다. 리미니 신경은 그리스도께서 “아무 변화 없이 만세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출생하였다”고 하였다. 아리우스주의 자들과 반 아리안주의 자들은 이 신경을 받아들였다.

**리미니 총회**가 삼위일체주의 자들에게는 워낙 수치스러운 총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 총회를 무시하고 언급을 일체 하지 않는다. 두 총회, 즉 니케아와 (서기 325 년) 콘스탄티노플만 (서기 381 년) 언급할 뿐이다. 만약 종교회의의 권위가 교리를 결정해야 할 것 같으면 리미니 총회를 무시할 만한 합법적인 이유가 없다. 이 총회가 무시되는 이유는 이 때 결정된 교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이 선택한 교리와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 영원적 출생

천주교가 영원적 출생의 교리를 받아들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요 3:16,18 이외) 라고 하는 명백한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기원이 없다는 새로운 견해를 합리화시키려는 시도였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전에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하나의 영원한 출생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로부터 항상 출생하고 있다는 교리이다. 이것은 “출생”이라는 단어를 강신술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의미로 재정의 한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서 (과거형), 왔음이라” (요 8:42) 고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고 있는 중이 (현재 진행형) 아니며, 그의 아버지로부터 나서 (과거형) 오신 것이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고 (요 15:26) 한다. 나온 것과 나오는 중인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항상 출생하고 있다는 이론을 받아들인다.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이 교리는 천주교의 공식적인 가르침이며 꽤 많은 숫자의 개신교 신학자들에게도 받아들여진바 되었다.

이러한 이론들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 이론들을 성경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이가 같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는 새로운 견해와 이에 따라 이어지는 거짓말들을 합리화시키려는 것뿐이다. 거짓 이론을 한번 진리로 받아들이면 그 거짓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거짓 이론(오류)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천주교의 조직은 하나의 거짓 이론 위에 다른 새로운 거짓 이론들과 교리들을 계속해서 올려놓은 결과이다. 결국 성경의 진리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원하였는지조차도 알아볼 수 없게 된다.

## 불법의 사람의 기초

“오늘의 카톨릭 신자를 위한 안내서” 책 11 쪽 아니면 16 쪽에는 천주교가 이렇게 인정한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천주교 신앙의 핵심 교리이다. 이 교리위에 교회의 다른 모든 교리가 기초를 두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천주교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는 거짓 이론위에 세워졌다. 이 이론은 삼위일체 교리의 입문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고 이 이론위에 삼위일체 교리가 세워졌다.

“삼위일체 교리의 발전에 있어서, 아들의 영원적 출생의 개념은 필수적이며 주요한 요인이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영원적 출생의 개념을 주축으로 해서 논의되고, 성립되며, 공언되었다.” (*A History of the Doctrine of Eternal Generation of the Son and its Significance in the Trinitarianism*, by Jung S. Rhee, Dr. of Theology and the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at the multi-denominational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lifornia. 어느 개신교의 조직신학의 교수 책에서 발췌)

서기 325 년에 개최되었던 니케아 총회에서는 한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다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며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출생하고 있는, 하나님과 한 존재와 한 물질인 신비스러운 분이라고 논쟁하였고 결론지었다. 56 년 후 (서기 381) 콘스탄티노플 총회에서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조성되었다는 개념이 천주교의 공식적인 정통 교리가 되었다.

“영원적 출생” 교리의 역사를 조사해보면 사단이 기독교에 새로운 이론을 들여온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왜곡한 것을 볼 수 있다.

## “독생자” 단어가 신 번역판 성경들에서는 삭제됨

사단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 놓았다는 놀라운 진리를 뿌리째 뽑으려는데 열중한 나머지 신 번역판 성경들, 새 국제번역, 개정 표준 판, 새 미국 표준 성경 등등 에서 요한복음 3:16 절의 “독생자” 라는 단어를 삭제하도록 번역가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다.

성경의 번역가들은 독생자를 뜻하는 헬라어 **모노게네스** (μονογενής/monogenes) 의 뜻이 “유일한” 아니면 “어떤 종류의 한 가지”를 뜻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독생자’를 삭제해도 된다고 핑계한다. 이 이론은 성경과 역사를 공부하면 쉽사리 무너진다.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9 번 사용되는데 사용될 때마다 출생된 자녀를 의미하였다. 그리고 신약이 기록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초대 교회 저자들도 **모노게네스**가 출생된 자녀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였다. 심지어 모국어가 헬라어인 그리스인들도 이 단어를 독생자라는 의미로써 알고 있다.

“영원적 출생” 의 이론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독생자” 라는 성경의 말씀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특별히 고안되었다. 만약 오리겐과 초기 천주교 종교회의에서 **모노게네스**가 독생자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이해하였더라면 이 입론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제 독생자가 아니라고 하였을 것이다. 또한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인 “영원적 출생”의 이론을 내어놓지 않았을 것이다.

**모노게네스** 는 **모노** (유일한)와 **게네스** (자손)를 합한 헬라어의 복합단어이다. **모노** 는 “유일”을 뜻하며 **게네스** 는 “자손”을 뜻한다. 헬라어 작가들이 “유일한” 아니면 “어떤 종류의 한 가지”를 의미하는 글을 쓸 때는 **모노게네스**를 사용하지 않고, “**모노**” 만 따로 사용하였다. “유일한 도시” 아니면 “유일한 집” 등을 쓸 때 **모노게네스**를 사용하는 것을 신약에서 볼 수가 없다. 오늘날에도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은 절대로 **모노게네스** 를 “유일”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모노게네스가** ‘출생한 자녀’를 의미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은 **모노게네스**를 재정의 하여 “유일한” 아니면 “어떤 종류의 한 가지”를 뜻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모노게네스**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독생자”를 뜻하였는데 이 단어에 원래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개념을 완전히 버렸다. 사단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성공한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 경고한 바위 아니면 움직이는 모래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마 16:13-18 참조) 천주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두 기초가 있는 두 교회가 있다-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졌고, 다른 교회는 그분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 아니라는 오류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 이것은 사단의 계획이다.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왜곡하므로 죄인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에게 지속적인 승리를 가져다주는 능력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일 5:5) 라고 선언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을 열심히 숙고하며,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가르침들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른 예수를 받아들여 속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였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헬라어: 단호하고 굳세게 서 있으라) (고후 11:3-4)

바울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이다. 이 경고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바울의 염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통해 성취되었다.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님께서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며, 영원토록 출생하고 있는 신비스러운 분이라는 것이다. 이 개념은 그리스도인 경험에 극히 중대한 요소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한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일 2:22)

삼위일체 교리는 니케아 총회 훨씬 전에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바이다. 천사 가브리엘은 교황청의 시작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행통하기를 분노하심이 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단 11:36,37)

교황청에 대한 이 묘사는 데살로니가후서 2:3-4 절에 나오는 바울의 묘사와 같다. 교황청이 권력에 오른 후 그 열조의 신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가브리엘의 말씀을 주목하라.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하나님을 교황청이 무시할 것이라는 뜻이다. 가브리엘은 계속하여 말한다.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경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단 11:38,39)

성경에 이미 예언된 바와 같이 교황청이 권력에 오르자, “그 열조의 하나님”은 무시되었고, 그들의 열조들이 알지 못하던 “이상한 신”이 등장을 했다. 사단이 4 세기에 교황권으로 하여금 삼위일체 교리를 채택하게 하므로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사단의 모조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동시에 그것을 믿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히 보지 못하게 하므로 속임수의 걸작이 되었다. 사단이 온 힘과 영향력을 다 행사하여 이 교리를 홍보하고 보호하며, 새로운 각도로 계속 진전시키지만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의 때가 다하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주요 종교들은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이나 그분의 죽음을 둘 다 부인한다. 유대교와 이교 종교들은 아예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이슬람교는 그리스도를 고귀하고 선한 선지자로는 인정하나, 하나의 인간 이상으로 보지 않으며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다. 천주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실제 아들이 아니며 아버지로부터 영원토록 출생하고 있는 신비한 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는 동일한 길을 따르며 입으로만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한다. 그리고 아들의 역을 맡은 분으로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라고 한다. 또는 부활하심으로 아들의 권리를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회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인정하므로 결국은 주님을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의 백성을 성경의 명백한 진리로 다시 부르심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

[1] Elohim has plural morphological form in Hebrew, but it is used with singular verbs and adjectives in the Hebrew text. Traditionally, the God of Israel is understood as a singular Deity……. It is worthy of note that, in the Biblical Hebrew (as well as in many other languages, such as Yaqui) the customary grammatical "plurality" of a word is often simply that: a grammatical plural. The use of "plural" forms for singular nouns is common in the Hebrew Bible, and often connotes quintessence, uniqueness, or might rather than plurality (though it may connote both). [en.wikipedia.org/wiki/Elohim](http://en.wikipedia.org/wiki/Elohim)

[2] \*Echad=A numeral from [H258](#) properly *united*, that is, *one* or (as an ordinal) *first*: - a, alike, alone, altogether, and, any (-thing), apiece, a certain [dai-] ly, each (one), + eleven, every, few, first, + highway, a man, once, one, only, other, some, together.)

## 제 7 장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기독교내에서 정통주의를 가늠하는데 쓰이는 가장 흔한 질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을 참으로 이해하면 질문을 받은 사람 자신도 본인의 대답에 놀랄 수도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삼위일체를 믿노라고 한다. 이 교리를 둘러싼 널리 퍼진 혼란 때문에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많은 다른 견해들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초래된다. 많은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이해를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상세히 설명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하여 설교하기를 거부한다. 삼위일체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하나님을 아는 것, 요 17:3)를 잘 깨달을 수 없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의 단어 자체는 멀리하고 피하나, 그들이 옹호하는 교리는 현실적으로 삼위일체 자체이거나, 삼위일체와 흡사한 교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복음에 대한 오해를 초래한다. 과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성경의 진리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4 가지 오류가 있다: 삼위일체론, 양태론 (“오직 예수”), 일신론, 그리고 삼신론이 있다. 이 가르침들의 공통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한다.

### 로마 천주교의 공식적인 견해

하나님에 대한 천주교의 공식적 견해의 주 요점들은 “정통 삼위일체론”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의 개신 교단들은 별 다른 없이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 천주 교단이 처음으로 만든 이 가르침만이 “정통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카톨릭 신자를 위한 안내서” 책 11 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천주교 신앙의 핵심 교리이다. 이 교리위에 교회의 다른 모든 교리가 기초를 두었다.”

“교회는 큰 주의를 가지고 이 신비를 연구하였으며, 4 세기에 걸친 연구 끝에 하나님의 신격에는 세 분 곧-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는 교리를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정통 삼위일체론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존재 (한 본질) 안에 별도의 세 위격이 계시다는 견해이다. “위격”과 “존재”는 같은 것을 뜻하지 아니하고 세 “위격”이 한 “존재”를 이룬다는 것이 이 교리의 설명이다. 신학계에서는 “위격”은 여러 다른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살펴볼 것이다.

정통 삼위일체론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천주교와 대부분의 개신교단들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아타나시오 신경을 살펴보자. 이 신경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르나 어거스틴의 글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부분적인 내용이다.



## 아타나시오 신경 ('퀴쿰케(Quicumque)신경)

- ☞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보편된 성교회의 믿는 교리를 따를지니, 이 교리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영원히 죽으리라.
- ☞ 보편된 믿을 도리는 곧 삼위에 한 천주시오, 한 천주에 세 위심을 믿어 흠송함이니, 위를 혼합치도 말 것이요, 체를 나누지도 말지니라.
- ☞ 성부의 위 다르시고, 성자의 위 다르시고, 성령의 위 다르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천주성이 하나이시오 영광이 같으시고 위엄이 또한 영원하시도다.
- ☞ 이와 같이 성부도 전능하시고 성자도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시나, 전능하신분이 세 분이 아니시오 다만 한분이시며, 또 성부도 천주시오, 성자도 천주시오, 성령도 천주이시나, 천주 세 분이 아니라 홀로 천주 한분이시며,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의지하여 마땅히 위마다 각각 다 천주시오 주님이심을 믿으며, 또한 성교회의 진리를 따라 천주 세 분이라 주님 세 분이라 하지 못할지니라.
- ☞ 또한 이 세위 중에 처음과 나중도 없으시고 크고 작음도 없으사, 오직 세위 같이 영원하시고 서로 같으시도다. 이러하니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마땅히 세위에 한분이시오, 한분에 세위이심을 믿어 흠송할지어다.
- ☞ 그러므로 영혼을 구령하려 하는 사람은, 성 삼위일체의 진리를 이렇게 믿으며.

(전체 신경에서 일부 인용. The Athanasian Creed as quoted in Philip Schaff's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ume 3, Section 132, page 690-693)

## 정통 삼위일체론 (Orthodox Trinity)

정통 삼위일체론은 한 존재의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구성되었다고 가르친다. 각자가 구별 되었으면서 서로 의식이 다르며 모두 나이가 같고, 각자가 지위와 능력에 있어서도 동등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교리의 정의는 더 깊이 들어간다. 이 교리에 의하면 “한 위격”을 언급할 때는 한 개체를 (존재)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세 위격이 (단수: hypostasis) 한 존재를 이룬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위격”이라는 단어는 개성과 개체 중간의 위치를 뜻하는 신학적인 단어이다.

다음은 어느 개신교 신학자의 주장이다.

“교부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잃을 위험에 처하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삶은 지성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 학생들은 공감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서가 명쾌하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교리는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삼위일체의 강조에 관하여 당혹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성서의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수육의 논리에 따르면 삼위일체 교리는 자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간직하고 있으며 또한 보호해 주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삼위일체 교리는 4 세기에 이르러 두 개의 종교회의, 곧 니케아 회의와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완전한 설명과 더불어 그 절정을 이루었다. 초기 교부들과 감독들은 하느님은 하나의 본질 (ousia) 이면서도 세 위격 (hypostases), 곧 하나의 존재 (one being) 혹은 하나의 실체(one substance)와 세 현존들(th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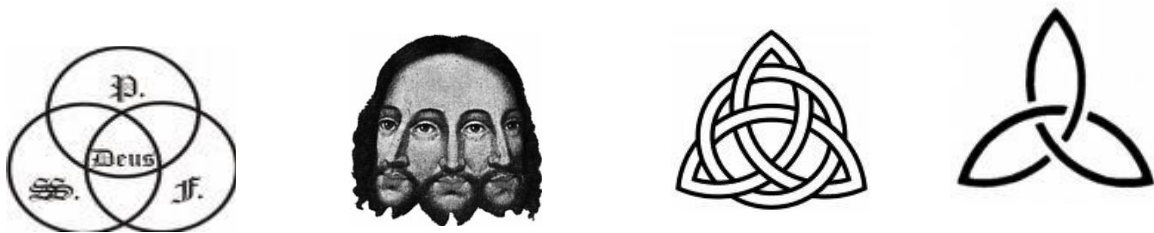
substances) 혹은 세 위격(three persons)이라고 주장하였다.” (로저올슨 외/이세형 역, *삼위일체*, 대한 기독교서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상한 개념은 너무 어려워서 아타나시오스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아타나시오스는 삼위일체론이 형성될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삼위일체 옹호자였다. 그러나 그는 “말씀의 (Logos) 신성에 대하여 명상하려고 그의 이해를 강요할 때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더 못 깨달으며, 그것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실력이 더 없어진다고 솔직히 고백하였다.” (Gibbon,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Volume 2, Chapter 21, page 223, paragraph 1)

삼위일체 교리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친 다른 한 사람은 교부 어거스틴이었다. 그는 삼위일체를 정의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의 저자였으며 삼위일체를 믿는 이들 중에서는 아주 유력한 저자로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어거스틴도 삼위일체를 정의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삼위일체를 정의하라고 부탁을 받으면 그것은 이것이 아니고 저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Augustine, as quoted in Philip Schaff’s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ume 3, Section 130, page 672) 다른 어떤 이들 보다 삼위일체 교리를 형성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아타나시오스와 어거스틴 자신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정의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 그림으로 표상된 정통 삼위일체 (세 위격이 한 존재로 연합하여 이루어진 한 하나님)



삼위일체 신자가 그린 그림

천주교의 공식적인 가르침인 정통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의식을 가진 세 위격으로써 한 존재를 이룬다는 것이다. ‘위격’은 헬라어로 하이포스테시스 (hypostasis) 라는 단어로 삼위일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존재라고 하며 속성과 존재의 중간 형태로 속성이 아니고 존재도 아니라는 가정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혼란스러운 개념은 기독교내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바 된 개념이다.

정통 삼위일체론은 실제적인 아들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도 부인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므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한다. 삼위일체의 유력한 옹호자였던 어거스틴의 말을 주목하라.

“죽은 사람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살릴 수가 없다. 그는 (그리스도는) 자신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이는 그의 몸은 죽었으나,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죽은 것을 살렸다. 자신은 살아있었으나 몸은 죽었던 자신을 그분께서는 살리셨다.” (Nicene & Post-Nicene Fathers, series 1, volume 6, page 656, St.

Augustine, “Sermons on Selected Lessons of the New Testament”)

죽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은 사실이다. 영광을 받으신 신성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계 3:18) 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음을 맛 보셨으므로 자신을 살릴 수는 없으셨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도리어 성경은 적어도 30 번 이상을 아버지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갈 1:1 은 이렇게 말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의 일부분이라고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어거스틴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 었다는 결론은 상식과 성경에 반대되는 것으로써 복음의 능력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며 영혼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믿지 않으면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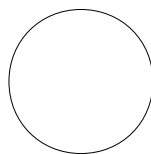
정통 삼위일체 교리는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과 죽으심을 부인한다. 그리스도께서 한 하나님의 존재의 한 부분이며 하나의 돌출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지난 장에서 살펴본 “영원적 출생” 이라는 교리를 천주교가 받아들인 사실에서 볼 수 있다.

## **양태론/양식론 (Modalism “오직 예수” 교리)**

“오직 예수” 교리라고도 하는 양태론은 한 분인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양식으로 작동된다는 개념이다. 이 교리는 세 분을 한 분으로 고정시켜서 한 분인 하나님이 세 번의 틀린 시기에 세 가지의 다른 양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사벨리우스주의 라고도 하는데 이는 사벨리우스 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고안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하나님이 세 가지 이름과 양식으로 구별될 뿐이라고 한다. 태양과 빛과 열을 비유로 사용하여 로고스(말씀)를 통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다면 장차는 로고스가 다시금 흡수되고 하나님은 하나일 뿐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 개념은 한분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의 역할로 나타내시고, 복음시대에는 아들로 나타나시고,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다.

### **그림으로 나타낸 양태론**



**세 가지 양식이나 개성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한 분 하나님**

양태론은 한 분인 하나님이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양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다른 세 존재가 아니며, 한 존재의 세 가지 표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양태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세 분께서 계신다고 한다. 그러나 존재나 위격이 아닌 세 가지 “개성, 특성, 발산, 아니면 표명”으로 보는 것이다.

이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 없는 것이다. 곧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 하셨다고 추론하므로 하나님 자신이 아들이시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역시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한다.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가 아들이신 것처럼 연극하며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큰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죽는 시늉을 하셨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소생케 하는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제거되었으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부족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유니테리어니즘/ Unitari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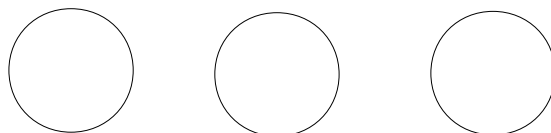
이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인 신성의 존재보다는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으셨던 인간 선지자라고 믿는다. 이러한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독교라고 믿지만, 기독교의 신앙을 반대하는 이슬람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 개념은 그리스도를 하나의 창조된 인간(피조물)으로 낮춤으로써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신성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제거한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제거해버린다.

## 삼신론 (Tritheism)

삼신론은 세 하나님이 그들의 목표와, 계획, 목적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일하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 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세 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한 위원회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세 신은 다 같이 시작도 없고 영원히 같이 존재하였으므로 “영원한 삼총사”와 같은 개념이다. 삼신론은 세 분의 틀린 개체가 있고, 세 분의 의식이 따로 있고, 따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들로 정의된다. (참고 문헌: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ume 3, Section 130, pages 676,677)

### 그림으로 나타낸 삼신론



그들이 목적과 품성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라고 하는 세 하나님

삼신론이란 성경의 한 하나님이 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이론은 성경의 한 하나님이 자신을 세 가지 양식으로 표명하신다는 양태론과는 달리 완벽한 조화 가운데서 일하는 세 분의 존재로 이루어진 한 위원회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 있을 수가 없다. 한 신은 아버지의 역을 맡았고 다른 신은 아들의 역을 맡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인도 스파이서 메모리얼 대학의 학장이었던 고든 젠슨의 서술이다.

“죄와 반역을 뿌리째 뽑고 조화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성의 존재의 한 분은 아버지의 역을 받아들이고 맡으셨으며, 다른 분은 아들의 역을 맡으셨다. 또 다른 신성의 존재는 성령이다,... 그 계획에 담겼던 역을 받아들이므로 신성의 존재들 모두가 신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들이 합의했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Review, "The Week of Prayer" issue, October 31, 1996)

이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차가운 개념 즉, 세 분의 위원회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 중 한 분을 세상에 보내어 하늘에 남아있는 다른 분의 아들인 것처럼 연극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개념 역시 그분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왜곡한다.

## 요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절)는 상징이나 역할이 아닌 실제 사실의 말씀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시다. 이 지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거짓 이론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곧 닥쳐올 짐승의 표에 대한 투쟁에서 견딜 수 있게 하는 능력, 즉 하나님과 그분의 깊고 참된 사랑에 대하여 얕은 이해 밖에 가져오지 않는다. 만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의 역을 취하셔서, 연극하는 분들로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연극할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9)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을 설득 시키려고 할 때는 절대로 삼위일체 교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 역시 요한복음 3:16 절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로서는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16 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온다. 그리하여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의 신자가 된다. 그러나 교인이 된 후에 삼위일체설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침으로 초기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던 복음이 제거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요 8:32) 말씀하셨다. 거짓말(오류)로서는 사람들을 도무지 변화시킬 수 없고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다. 오로지 진리로써만 가능할 뿐이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



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후 3:18)

아무리 순진하게 믿었던 거짓말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거짓말이든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은 “거짓 것”을 믿으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살후 2:11,12) 고 말하였다. 또한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역사상 대부분의 경우 다수가 맞지 않음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 7:13) 고 말씀하셨다. 사람의 회의나, 사람이 만든 신경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으나 진리를 가늠할 수 있는 표준이 못된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사 9:16)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실수가 없는 인도자는 오직 한 표준,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살리”셨다는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또한 성령은 “아버지께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고전 8:6, 잠 8:25, 요 8:42, 16:27, 요 3:16,18, 고전 15:3, 갈 1:1, 요 15:26, 딤후 3:5,6, 엡 4:30, 엡 4:4, 고전 2:11)

사람들은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염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행 24:5) 그러나 바울은,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였다. (행 24:14)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요 4:23)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 (유 1:3) 쓸 때에 진정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고서도 그릇된 견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생애만 올바르게 하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애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우리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빛과 진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을 특권을 이용하기를 게을리 하면 우리는 사실상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 16:25).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온갖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과오와 죄를 범했다고 핑계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갈 때 여러 갈림길이 있는 곳에 이르자 거기에는 각각 어디로 가는 길인지 표시해 놓은 안내판이 서 있었다. 만일 그 사람이 그 안내판을 무시하고 그의 생각에 옳게 보이는 길을 택한다면 그가 아무리 진실할지라도 그는 필경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제 8 장 질문들 그리고 곡해 된 성경절 풀이

### 몇 가지 질문들:

여기에 있는 몇 가지의 질문들은 진리의 말씀과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1. 성령에게 기도하고 경배하는가? 만약에 한다면 성경적인 모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

“저희가 둘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행 7:59,60)

답: 성령에게 기도하는 모본 없음

#### 2. 아버지와 아들에게 영이 있는 것처럼, 성령도 자신의 영이 있는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롬 8:9) (롬 8:14, 고전 2:11, 요 1 서 4:2, 벰전 1:11, 갈 4:6, 빌 1:19 참조) 답: 성령의 영 없음

#### 3. 성령의 보좌가 있는가?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계 22:1)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3 절) (시 45:6, 마 5:32, 23:22, 히 12:2, 계 7:15 참조) 답: 성령의 보좌 없음

#### 4. 성령의 나라가 있는가?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엡 5:5) (마 6:33, 마 12:28, 막 1:14-15, 막 4:11, 막 9:1, 눅 22:30, 요 18:36) 답: 성령의 나라 없음

#### 5. 성령의 영광이 있는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sup>1</sup> 아버지와<sup>2</sup> 거룩한 천사들<sup>3</sup>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눅 9:26) \*천사들의 영광도 언급이 되었는데 왜 성령의 영광은 언급이 안 되었는가? **답:** 성령의 영광 없음

## 6. 성령의 모습이 있는가?

-**아버지의 모습**=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의 불이며”(단 7:9)

-**아들의 모습**= “춧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계 1:13-16) **답:** 성령의 모습 없음

## 7.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는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아버지가 성령에게, 또는 아들이 성령과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 3:17)  
(요한복음 17 장 전체 참조)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마 17:5)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마 26:39,42)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1:41,42)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요 12:28)

**답:** 성령과 예수님과의 대화 또는 성령과 아버지와의 대화 없음

## 8. 딤펬전 5:21 절에서 천사들도 언급이 되는데 성령이 다른 개체라면 왜 언급되지 않았는가?

“하나님과<sup>1</sup> 그리스도 예수와<sup>2</sup>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sup>3</sup>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지 하지 말며.”(딤펬전 5:21)



## 9. 신성의 몇 분이 계시는가?

“그가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속 6:1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일 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찌어다 하니” (계 5:13)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계 7:10)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계 22:1,3)

## 꼭해된 성경절 풀이:

### 1. 마태복음 28:19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절은 삼위일체를 옹호하기 위하여 가장 잘 쓰이는 성경절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절은 침례를 베풀 때 사용해야 하는 선서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침례를 베풀었는가?

사도행전 2:38 절에 첫 기록이 나온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침례를 줄 때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지 살펴보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행 10:48)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을 때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한 무리를 보았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러라.” (행

8:16)

위의 성경 절들을 볼 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삼위일체의 가르침으로 이해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베드로 이외에도 이렇게 이해한 또 다른 사도가 있었는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의 예를 살펴보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행 19:5)

이렇게 성경의 기록에는 각각 세 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가정해 볼 수 있다.

1.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
2.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
3. 마태복음 28:19 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님
4. 오늘날의 삼위일체를 믿는 자들이 이 절을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제자들이 이해함

이 네 가지 이유 중 네 번째가 가장 유력한 해답이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가르치고 계셨더라면 그전에 하셨던 말씀들과 성경의 다른 기자들이 기록한 말씀들을 반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절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에베소서 4:6 절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고 쓰여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신자에게 침례를 주기 위해서는 그분의 개인적인 이름을 알아야 한다. “여호와”는 (출 6:3)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며, “미가엘, 예수님” 등은 (단 12:1; 계 12:7; 마 1:21) 아들의 개인적인 이름이다. 그러나 성경 어디서도 성령의 개인적인 이름을 찾을 수도 없다. 또한 성경은 성령의 개인적인 이름이 존재한다는 증거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이름’은 성경에서 사람의 품성, 혹은 특성을 의미한다. 야곱은 그의 품성이 변하였으므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 마태복음 28:19 절에서 나오는 ‘이름’은 헬라어로 오노마(onomata)인데 ‘이름’, ‘권위’, 혹은 ‘특성/품성’을 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고 침례를 베풀라는 뜻이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필수적이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도록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으며 그분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 세 가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계 3:12)

섭섭하게도 왜 성령의 이름은 안 나와 있을까? (답: 아버지와 아들 이외에 또 다른 분이 없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전체 참조.

## 2. 고린도후서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절 역시 삼위일체를 지지하기 위하여 많이 쓰이는 구절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2. 하나님의 사랑
3. 성령의 교통

이 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오직 한번 쓰이며 특정한 한 분을 가리켜 쓴 것을 볼 수 있다. 이 절에서 가리키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또한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며 그분들의 영을 통하여 이 두 분과 교통(교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 14:23)

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교제할 것인지 말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다. 요일 1:3 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한에 의하면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사귀기를 (교제) 원하는 것이다.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율법을 범함으로 규정된 형벌을 되돌리신다. 그 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며 하늘의 호의를 받게 되고 영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

### \*신약 편지서 문안에 나오시는 두 분

롬 1:7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참조: 고전 1:3, 고후 1:2, 갈 1:3, 엡 1:2, 빌 1:2, 골 1:2-3, 살전 1:3, 살후 1:2, 딤펴전 1:2, 딤후 1:2,

딤후 1:1,4, 몬 1:3, 약 1:1, 뵤뵤 1:2, 뵤뵤 1:2, 요일 1:3, 요이 1:3, 유 1:1, 계 1:1)

### 3. 마태복음 3:16, 17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자들은 이 절들이 삼위일체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나 추측과 편견을 버리면 이 절들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예수님과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라고 발표하시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계시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이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선포하신다. 왜 아버지께서는 “이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요”라고 하지 않으시는가? 여기서 성령은 비둘기로 표시 되었다. 성경에서 성령은 기름, 물, 바람, 불, 그리고 이 절에서는 비둘기로 표상 되었다. 이 절들이 성령을 삼위일체의 세 번째 분으로 표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다. 자세히 읽었을 때 누구의 성령인지 결론이 나온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셨다.

천사들은 전에 이러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이신 예수께 보증과 위로의 기별을 전해 주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의 간구를 응답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의 빛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하늘이 열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 온다.

### 4. 요한 1 서 5:7 (킹 제임스 역)

이 절의 한 부분은 '콤마 요한네움' (comma Johanneum)이라고 알려진 한 위조된 유명한 문구이다. 그 문구는 신약의 요한 1 서 5 장 7 절인데,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하늘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계시니, 이 셋은 하나이니라.” 이 문구는 초기 그리스어 사본에 들어있지 않았으며 요한이 편지를 쓴 지 몇 세기가 지난 후에 삼위일체 논쟁이 격렬했을 때 언젠가 삽입되었다. 그 문구는 불가타역의 가장 오래된 라틴어 사본들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그리스어 학자 '에라스무스(Erasmus)'는 위조된 이 삽입 문구를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에서 빼버렸다.

천주교회도 이것을 인정한다. 다음의 글은 천주교의 어느 웹 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예로부터 유명한 논쟁을 일으켜 온 한 구절만큼은 본디의 본문에 속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곧 5,7-8 의 삽입구로, ‘comma johanneum’ 곧 ‘요한 소절(小節)’로 불리는 것이다(괄호 속의 글귀이다): “(7 절) 그래서 (하늘에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신데 이 셋은 한

분이십니다. <8 절> 땅에서 증언하는 것도 셋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16 세기 말 두 교황의 이름을 따서 Sixto-Clementina 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대중라틴말성서(불가타)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된 이 글귀가 15 세기 이전의 모든 그리스 말 수사본, 고대 번역본들, 그리고 대중라틴말성서의 질 좋은 수사본들에는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요한 소절’은 난외 해설이 서방의 전승 과정에서 본문 속으로 들어간 것일 수 있다.”

## 5. 창세기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절에서 “엘로힘”이 복수이고 “우리가”라는 대명사가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혹자는 말한다. 그러나 본서 6장에 설명되었던 바와 같이 히브리인들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절은 “하나님들이 가라사대”라고 쓰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 1:2) (골 1:16 참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땅과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신 후 **성부와 성자**께서는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일, 즉 **그분들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자 했던 계획을 실현하셨다. 그들은 땅과 땅 위에 있는 생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협력하여 일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다. (참고: 히 1:2)

## 6. 이사야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으니”라는 문구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왜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녀들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히브리서 2:13 절은 바울이 이사야 8:18 절을 인용하며 그리스도께 이절을 적용시킨 것이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불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히 2:13)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

은 것이니라.” (사 8:18)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자녀들아” 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요 13:33 절 참조)

아무리 목자가 양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자기 자녀들을 더욱 사랑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이시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요 10 : 14, 15)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내 짝된 자”(슥 13 : 7)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다. 즉 그분과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의 친교는 그리스도와 세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 사이의 친교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시작이 없으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시작이 없었다는 말인가?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님도 되시지만 동시에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뜻이다.

한국어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있으나 히브리어와 영어로는 “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gibbō ‘r)으로 나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래 아버지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러나 아들 역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도 그분의 아들을 “하나님” (히 1:8) 으로 부르기 때문에 “능하신 하나님” 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적절한 표현이다.

## 7. 계시록 1:8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 같이 보이나 계 1:4 절과 4:8 절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 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계 1:8, 11 21:6 22:13 참조 )이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

주님께서 모든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계 21:6)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시라는 뜻이다.

## 8. 요한 1 서 5: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어떤 이들은 이절에 나오는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한다. 요한복음 17:3 절은 “영생은 곧 유일한 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3 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이다. 참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요 1:18) 주신다는 말씀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므로 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 9. 디도서 2:13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영어로는 “크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나와 있다. 재림 때 두 분의 영광을 묘사하는 장면이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눅 9:26)

## 10. 출애굽기 3:14 (요 8:58)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히브리어의 표현 “스스로 있는 자” 는 자존하신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5:26 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셨다. 어디서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자존하는 생명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시다. 예수님은 근본적이며 판데서 빌리지 아니하였고 판 기원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 그 생명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 11. 로마서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절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영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한 중보자가 계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후 2:5) 그리고 고전 8:6 절과 엡 4:5 절은 한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한다. 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후 3:17) 라고 한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탄식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의 통로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의 이름, 우리의 대언자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에게 나갈 수 있다. 그의 영은 우리의 기도에 영감을 불어넣어야만 한다. 어떤 다른 불도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렸던 향로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분께 받아들여질 만하려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그 불붙는 갈망을 불러 일으키셔야 한다. 우리 속에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 12. 사도행전 5:3, 4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당연히 하나님 자신의 성령이다. 같은 장 9 절은 성령이 “주의 영”으로 나와 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사도행전 5:9)

## 13. 여호와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출 23:21)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난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 1:4)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아버지에게서 물려 받으셨다.



여호와와는 그리스도께 주신 이름이다.

#### 14. 멜기세덱 (히 7:3)

“아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예표하는 아브라함 시대의 실제 인물이지만 예수님 자신은 아니다. 아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뜻은 실제 부모가 없다는 뜻인가? 아담은 부모가 없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멜기세덱은 아담의 후손이므로 부모가 없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억측이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족보가 시작하기 전의 인물이므로 그의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도 어미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의미는 그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의미이다.

#### 15. 왜 성령을 "그" 혹은 '다른 보혜사' 라는 삼인칭의 표현법을 사용하였는가?

예수님의 말씀 중 삼인칭 표현법의 예:

요 3:13-1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 4:10,26,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요 9: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위의 성경 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른 분처럼 삼인칭 표현법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사도 바울 역시 고후 12:3 에서 같은 표현법을 사용하였다. 사도 요한도 요 19:26, 21:20 절에서도 같은 표현법을 사용하였다.

요 1 서 2:1 절에 언급된 ‘대언자’는 ‘보혜사(위로자)’와 같은 의미이며 ‘Parakletos’ 라는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대언자는 누구이신가? 당연히 예수님이시다. 더 이상 육신의 눈에 보이는 위로자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로자이시다.

## 제 9장 다른 복음의 역사

### 다른 복음의 역사

1. 다른 복음의 시작 (이미 하늘에서 겔 28:14-18, 사 14:12-20): 루스벨은 하나님의 정부를 공격하고 자기의 계획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며 하늘 천사들을 미혹하였다.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탐냄으로서 다른 복음을 시작하였다.
2.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에 마귀의 거짓말 “즉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을 믿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3.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중 하나인 함의 후예들은 믿음의 후예들로부터 분리된 후 바벨탑을 쌓았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바벨 탑 안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리고 이곳에서 삼신 경배의 시작으로 니므롯, 세미라미스, 다무스를 숭배하였다.
4. 각 나라의 삼신들:
  - 애굽 - 호로스, 오시리스, 셉
  - 바벨론 - 이스타르, 신, 샤마스
  - 페르시아: 아후라 마즈다, 미트라, 안그라 마이뉴
  - 그리스 - 제우스, 아폴로, 아테나
  - 로마 - 주피터, 마르스, 비너스
  - 인디아 - 브라마, 시바, 비쉬누
5. 초대 교회 (갈 1:6-9, 고후 11:4, 요 1 서 2:22, 4:1,2)
6. 중세시대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교회) 이교 로마의 삼신 사상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혼합되어 삼위일체 사상이 기독교 교리로 받아들여졌고 확립되었다.
7. [1]다니엘 7:7,8 절에 나오는 10 뿔 중 3 뿔로 대표된 나라들: 뱀털, 동고트, 헤루라이는(Vandals, Ostrogoths, Heruli) 교황권의 삼위일체 교리(다른복음)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황권에 의해서 전멸되었다.

### 삼위일체 교리의 위험성

1. 존재하지 않는 다른 신을 상상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의 계명(1-4)들을 범하기 때문.
2. 세 천사 핵심 기별에 위배됨.

- 1) 참된 창조주 경배
- 2) 바벨론의 대표적인 두 오류 [삼위일체, 일요일] 경고
- 3) 짐승의 표, 이름, 숫자, 우상 경배를 경고함.
3.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실제적인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부인함.
4. 실제적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희생(사랑) 즉, 복음의 가치를 저하시킴.
5.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영으로 신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깨달을 수 없고 혼란스럽게 만듦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수 없다.
6. 참된 구속의 경륜(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왜곡시킴.
7. 속죄의 가치를 저하시킴.
8. 상식에 어긋나고, 성경과 반대되며, 이교적이며 전설적인 기원을 가졌기 때문에.
9. 성령이 하나의 개체라면 예수님이 성령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10.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그분들의 영을 또 다른 하나님으로 간주함으로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세천사 기별

### 1. 첫째 천사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 14:6,7)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무한한 희생(사랑)이야말로 영원한 복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그분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며 경배할 수 있는데 이 첫번째 천사는 그분의 정체체를 드러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다. 이 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히 1:2, 골 1:16 참조)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 2. 둘째 천사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 14: 8)

바벨은 ‘혼잡’ 아니면 ‘혼란’ 이라는 뜻이다. 그 기원은 창세기 11 장에 언급된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한 가지 언어밖에 없었으나 바벨탑에서 그들의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었고 (창 11:7), 그래서 바벨탑 공사가 중지 되었고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지구의 각 방면으로 (창 11:8) 흩어졌다.

중세기를 지나긴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왜 암흑시대라고 하는가? 암흑은 어둡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 사도 시대 이후에 교회가 점점 핍박을 받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성경의 참 진리의 빛이 이교 로마의 오류의 쓰레기 더미에 묻히게 되어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었고, 하나님과 복음에 관한 지식이 없어지므로 어둡게 되었다. 이교 로마의 다신교와 태양 숭배 사상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혼합되어 삼위일체설, 일요일 신성설, 영혼 불멸설, 연옥설, 죽은자 숭배, 마리아와 성도 숭배 등등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가르침인 삼위일체와 일요일 경배와 그 이외의 모든 거짓 교리들이 무너졌음을 가르쳐 준다.

### 로마 카톨릭 교리가 들어온 역사

|          |                                          |
|----------|------------------------------------------|
| 200 AD   | 죄가 없다고 간주되는 영아들 침례 (터툴리안 V. 12)          |
| 257 AD   | 병상에 있는 성인들 위해 침례 대신 세례 허용했으나 큰 논란을 일으킴.  |
| 300 AD   |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
| 321 AD   | 일요일 법령 (콘스탄틴 황제)                         |
| 364 AD 경 |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안식일 (제 칠일) 성수 금함.             |
| 325 AD   |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 입문 - 아들의 영원적 출생 교리 채택 |

|         |                                              |
|---------|----------------------------------------------|
| 325 AD  | 부활절 날짜 정함                                    |
| 379 AD  | 마리아와 성도들에게 기도                                |
| 381 AD  | 콘스탄티노플 총회-삼위일체-성령을 세 번째 위격으로 새롭게 해석함         |
| 385 AD  | 서방에서 성직자들의 결혼 금지 시작                          |
| 389 AD  | 성모 마리아 숭배 시작                                 |
| 400 AD  | 배도의 불가능성, 한번 구원 얻으면 영원히 구원 (Augustine XII.9) |
| 430 AD  | 에베소 총회에서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추대              |
| 502 AD  | 성직자들의 복장 규정                                  |
| 500 AD  | 수녀들의 관습 (검은 겹옷과 흰 색 상의)                      |
| 519 AD  | 사순절                                          |
| 593 AD  | 그레고리 대제가 성서외전에서 가져온 연옥의 교리를 대중화 함.           |
| 787 AD  | 성상과 우상 경배 허용 (제 2 차 니케아 총회)                  |
| 995 AD  | 교황 요한 15 세에 의한 죽은 성도들의 시성 (성자의 반열에 올리기)      |
| 998 AD  | 수난일                                          |
| 1009 AD | 성수 (聖水)                                      |
| 1022 AD | 고해성사/고백성사                                    |
| 1054 AD | 로마 천주교가 정교회로부터 분리됨                           |

|         |                                                              |
|---------|--------------------------------------------------------------|
| 1079 AD | 수도사들의 독신 강요 (교황 그레고리 VII 세)                                  |
| 1090 AD | 묵주                                                           |
| 1190 AD | 면죄부 판매                                                       |
| 1215 AD | 화체설 (제 4 차 라테란 총회에서 교황 이노센트 III 세)                           |
| 1215 AD | 사제에게 죄를 고하는 비밀 참회/비밀 고해 (교황 이노센트 III 세, 라테란 총회)              |
| 1215 AD | 미사                                                           |
| 1217 AD | 성체 조배 (교황 혼리어스 III 세)                                        |
| 1268 AD | 사제들의 면죄/사면 능력                                                |
| 1311 AD | 병자뿐만 아닌 모두를 위해 침례대신 세례로 정함 (Ravenna/라베나 총회)                  |
| 1439 AD | 플로렌스 총회에서 연옥을 신조로 규정 (593 AD 참고)                             |
| 1480 AD | 종교 재판소 (스페인)                                                 |
| 1495 AD | 교황권의 결혼 권리 통제                                                |
| 1534 AD | 예수회 창립 《(로올라 1491-1556)스페인의 성직자; 예수회(Society of Jesus)의 창설자》 |
| 1545 AD | 트렌트 총회에서 교회가 만든 인간의 전통을 성경과 동등 되게 함                          |
| 1545 AD | 성서외전 추가 (트렌트 총회)                                             |
| 1546 AD | 인간의 공로로 의롭게 됨                                                |

|         |                                                                                                                                                                                                                                                                           |
|---------|---------------------------------------------------------------------------------------------------------------------------------------------------------------------------------------------------------------------------------------------------------------------------|
| 1546 AD | 라틴어로 미사                                                                                                                                                                                                                                                                   |
| 1547 AD | 전직성사/신앙 고백식                                                                                                                                                                                                                                                               |
| 1560 AD | 교황 피오 IV 세의 개인적인 견해들을 공식적인 신경으로 강요                                                                                                                                                                                                                                        |
| 1864 AD | 교황 비오 9 세의 실러버스 에로룸(Syllabus Errorum)이라는 회칙에서 양심의 자유란 “미치광이의 광기”라고 단죄하고, 언론의 자유란 “전염병 같은 오류”로서 그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이 없다고 정죄함. 그는 교회의 무력 사용권을 다시 요구하였고, 자기 이전의 수많은 교황들이 그러했듯이 카톨릭이 아닌 가르침이나 설교, 그리고 카톨릭이 아닌 개인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을 민간 정부는 당장 구금해야 한다고 요구함. (교황 피오 IV 세와 바티칸 총회가 이를 승인함) |
| 1870 AD | 교황 무류설 (바티칸 총회)                                                                                                                                                                                                                                                           |
| 1908 AD | 모든 카톨릭 신자는 세례하고(영세) 명명하여 교회로 입적해야 함.                                                                                                                                                                                                                                      |
| 1950 AD | 성모 마리아가 죽은 얼마 후 승천했다고 가정함 (교황 피오 XII 세)                                                                                                                                                                                                                                   |
| 1954 AD |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설, (교황 피오 XII 세)                                                                                                                                                                                                                                        |
| 1996 AD | 천주신자는 진화론을 믿어도 됨. (교황 바오로 II 세)                                                                                                                                                                                                                                           |

### 3. 셋째 천사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9-12)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상징과 표상들이 나오는데, 짐승이란 무엇인가? 다니엘서 7 장, 8 장에 짐승

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7 장 23 절에 보면 짐승은 나라를 표상한다.

세 번째 천사가 가리키는 짐승의 정체는 곧 누구일까? 계시록 13:1-6 절의 짐승은 다니엘 7:15-26 절에 나오는 짐승과 같은 짐승이다.

요한계시록 13 장의 예언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묘사된 세력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표범과 비슷한 짐승으로 표상된 교황권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또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할 것이며, 더욱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계 13:11~16) 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은 북미 합중국임이 이미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로마교가 그의 최상권에 대한 특별한 인정의 표로 주장하는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하게 될 때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만이 교황권에게 이러한 경의를 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때 로마의 지배권을 인정한 모든 나라에 있었던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언은 그 세력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알려 준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계 13:3)리라고 한다. 치명적 상처를 받은 타격은 1798 년에 발생한 교황권의 몰락을 가리킨다. 그 일이 있은 후 선지자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 “불법한 자”(살후 2:8)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바로 세상 종말까지 기만하는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교황권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계 13:8)고 한다. 신대륙과 구대륙 모두에서 교황권은 오로지 로마교회의 권위로 세워진 일요일 제도의 존중을 통하여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로마교의 최상권 시대에 편만했던 영적 암흑과 죄악은 로마교가 성경을 금지함으로 생긴 필연적 결과였다. 그러나 종교 자유 아래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이 시대에 불신이 편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일과 그 결과로 생기는 타락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사단이 성경을 빼앗음으로 세상을 더 이상 그의 지배 아래 둘 수 없으므로 그는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을 쓴다. 성경을 믿는 믿음을 파괴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이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신조를 소개함으로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치 성경의 교훈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범죄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한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의 종교 단체들은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인기 없는 진리를 듣기를 거절하고 그 진리를 대적하여 싸우는 중에 여러 가지 해석을 채택했으며 회의론의 씨를 널리 뿌려온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 영혼 불멸설과 죽은 자에게 의식이 있다는 로마 천주교의 오류를 그대로 고수함으로써 그들은 강신술에 대한 유일의 방어책을 거부해 버렸다. 영원 지옥의 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지 않도록 이끌었다. 또한 넷째 계명의 요구가 사람들에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제칠일 안식일을 준수할 것이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그리하여 많은 인기 있는 교사들은 그들이 이행하고 싶지 아니한 의무에서 벗어나는 유일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율법도 안식일도 모두 내어 버린다. 안식일 개혁 운동이 확대됨에 따라서 넷째 계명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



법을 거절하는 일은 거의 세계적인 일이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불신에 대하여, 강신술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심의 거룩한 율법을 멸시하는 일에 대하여 문을 열어 놓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계에 있는 죄악에 대한 무서운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천주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술전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심연(深淵)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천주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 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강신술을 통하여 나타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은 사람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들을 대적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영들과 교통하는 자들은 일요일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국가의 법률을 하나님의 율법과 똑같이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큰 죄악을 한탄하고 도덕적 타락의 상태가 일요일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증언을 지지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큰 분노가 격발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지막 싸움을 할 때 사단이 사용하는 방침은 그가 하늘에서 대쟁투를 시작할 때 사용한 것과 똑같다. 그는 하나님의 정부를 굳게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밀히 그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바로 그 일을 충성된 천사들의 소위인 것으로 비난하였다. 그와 똑같은 기만정책이 로마 천주교회의 역사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동하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힘쓰고 그분의 율법을 바꾸고자 하였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복음에 충성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악행자로 고발당하였다. 그들은 사단과 동맹했다고 선고되고, 또 그들을 비난하고 사람들 앞과 자신들에게까지도 극악한 범죄자들로 나타나게 하고자 가능한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오늘날도 그러할 것이다.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멸하고자 할 때 그는 그들을 율법을 범한 자들로,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세상에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자들로 비난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단의 상투적 수단은 자기가 설복할 수 없는 자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압박하는 일이다. 위협과 폭력을 통하여 그는 양심을 지배하고 자기 자신이 승배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종교적 세력과 세속적 권세를 통하여 활동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률을 강요하도록 사람들을 충동한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제지를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주장할 것이다.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으로 정죄당할 것이다. 그들의 말을 거짓되게 조작하고 그들의 동기는 가장 나쁘게 해석될 것이다.

개신교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분명한 성경상 논증을 부인할 때 그들은 그들이 성경으로 믿

음을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고자 열망할 것이다. 비록 그들 자신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교계에서 하고 있는 일을 양심적으로 거부하고 교황권의 안식일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도록 이끌게 될 길을 오늘날 따라가고 있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중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신적 권위의 부족을 압제적 법령으로 보충할 것이다. 정치적 부패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소멸시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위정자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것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양심의 자유가 더 이상 존중되지 않을 것이다. 절박한 싸움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에 나타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계 12:17).

현재 로마 천주교는 온 세계의 경제, 정치, 종교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그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한편 요한계시록 14 장 12 절에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한 무리가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또 믿음으로 어린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무리이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세력의 조롱이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충성할 특별한 무리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

#### 4. 또 다른 천사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계 18:1-5)

성경 진리가 아닌 오류를 신봉하고 가르치는 단체를 바벨론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계 18:4)도록 불리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세상에서 일어날 사태는 참으로 무섭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계 13:16) 거짓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교회의 습관을 따르도록 명령할 것이다.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법률상 형벌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자들이 진노를 받을 것을 경고해준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 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관계, 교회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 회고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을 한 국가와 교회로 세우셔서 참된 복음을 전파케 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중세기 동안에 훼손되었던 참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날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일꾼들을 부르신다. (계 14 장 참조)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는 비평을 받았다. 그러나 진정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였는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성경의 참 하나님과 참 복음을 회복시켰다. 엘리야의 정신으로 침례요한 역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가리킴으로 참 복음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예수님 제자들 역시 참 복음을 이해하였고 이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하였다. 그들은 온갖 형태의 핍박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면서도 즐거이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롬 1:16, 살후 1:5, 2:1, 딤후 1:8, 빌 1:17, 벰전 1:12,2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진리의 보관자들을 두셨다.

신앙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때, 즉 밤중이었다. (마 25:6)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노아와 롯 시대의 형편은 인자가 오시기 직전의 세상 형편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시대를 예언하는 성경절들은 사단이 모든 힘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살후 2:9, 10) 활동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마지막 날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둠과 오류와 이단과 미혹으로 명백해지고 있다.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되어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

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이 될 것이며, 슬픔의 밤과 핍박의 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인기가 없었다. 진리는 현시대에도 인기가 없다. 사단이 최초로 자고심으로 이끄는 거짓말을 제시함으로 진리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에게 심어 준 이래로 진리는 인기가 없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이론과 교리를 접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전에 대하여 그러했던 것처럼 이런 이론과 교훈에 집착한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틀 것이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원한 미덕, 많은 세대의 기쁨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것을 멸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버린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비록 때때로 저지당하는 듯이 보이는 그 발전은 결코 저지되지 않았다. 당신의 기별이 반대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별에 좀 더 힘을 주셔서 보다 큰 감화를 끼칠 수 있게 하신다. 진리는 거룩한 능력을 부여받아 가장 굳은 방벽이라도 뚫고 나아갈 것이며 모든 장애를 극복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 중에서 그 어떤 죄보다도 진노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급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신앙적 위기에서 무관심과 중립은 하나님께 무거운 죄로 받아들여지며, 하나님께 대한 최악의 적대감과 같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행 17:30)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렘 6:16)

---

[1] F. J. Foakes-Jackson, "The New West and Gregory the Great," in the composite work *An Outline of Christianity* (New York: Bethlehem Publishers, 1926), Vol. 2, p. 150

## 제 10 장 일곱 재앙 그리고 재림

### 일곱 재앙 경고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라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인가?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각 사람을 위하여 이 생에서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은혜의 초청을 수없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며 그분의 계명을 불순종하므로 죄의 창시자인 사단을 경배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요한계시록 16 장의 일곱 재앙이 임한다. 이 일곱 재앙은 붓으로 표현하기에는 실로 두렵고 엄청난 사건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 22:11) 이 성경절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한 이후에 그들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 재림

계시록 14 장의 세 천사 기별 직후에 재림의 광경이 나오는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 14:14-16)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 22:6,7)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계 21:1-5)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사 32:18, 60:18, 65:21, 22)라.

## 대쟁투의 종결

거기서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속죄애(贖罪愛)의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하나님을 등한히 하도록 유혹하던 잔인하고 기만적인 원수는 더 이상 없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 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企圖)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게 된다.

우주의 모든 보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구 대상으로 펼쳐진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땅 위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의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된다. 그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숨씨를 명상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같이 나눈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 곧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 위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

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단과의 대쟁투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 거문고를 탄다. 그리하여 천천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창을 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3).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鼓動)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原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시라고 선포한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야 한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써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광경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단의 요술에 걸려 있는 땅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아, 졸지 말라. 원수는 몰래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그는 그대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졸고 있을 때 어떤 순간이든지 덤벼들어 그대들을 사로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모스 4:12)

Prepare to Meet Thy God

---

초판 발행: 2009 년 9 월 23 일

초판 인쇄: 2009 년 9 월 25 일

엮은이: 고진주

발행처: 세 천사 기별 연구원

이메일: [enter144@gmail.com](mailto:enter144@gmail.com)

전화: 한국 061-337-4040

---